DAILY **The Korea Times Toronto**

No. 897 1982년 8월 10일(화) 1025 DUPONT ST. TORONTO, ONTARIO M6H 1Z7 (416) 533-2361~4 Tuesday, August 10, 1982

한국일보 토론토

토론토발행인 : 김영규
편 집 인 : 이석현
인 쇄 인 : 박점서
광 고 국 장 : 송광호

EAST ASIAN LIBRARY UNIVERSITY OF TORONTO LIBRARY ... TORONTO, CANADA M5S 1A5
AUG 1 3 1982

"실업개선 내년 봄에나"

연방 고용장관
전국 실업자수 140만 공황이래 최악

(오타와)캐나다가 현재의 실업 위기를 벗어나려면 내년봄까지 기다려야 할 것이라고 로이드·액스워디 고용성장관이 6일 밝혔다.

6일 캐나다통계국이 공식집계한 실업자수가 140만명, 실업율이 30년 대공황이후 최고인 11.8%라고 밝혀진 직후 액쉬디 고용성장관은 지금 약간의 회복의 기미가 보이기 시작한 캐나다 경제가 새 고용을 창출해내려면 내년 봄이나 돼야 할 것이라고 예견했다.

최근 캐나다 달러가 약간 강세를 보이기 시작했고, 이자율도 조금씩 떨어져 미미한 경제회복의 조짐이 보이지만, 실업구제를 위해서는 사실상 아무런 대책도 없다고 말했다.

또한 트루도수상은 7일 발표된 실업률에 비추어 연방정부가 내놓은 임금억제책은 반드시 실천돼야 할 중요한 정책입이 드러났다고 말하고, 고용시장이 확대되려면 인플레이션부터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신민·보수 두 야당은 이구동성으로 자유당의 경제정책을 신랄히 꼬집었다.

데이빗·크롬비(로즈데일 출신 연방의원)보수당 고용담당 비평가는 "즉각 총선을 실시, 국민들로 하여금 현정부 정책을 판단케 하라"고 말했고, 시릴·키퍼 신민당 의원은 "정부는 고용창출을 최우선으로 놓고 세금공제로써 국민들의 구매력을 늘리고, 새 직업을 창출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 "여름 휴회중인 국회를 즉각 재소집 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대해 앨런·맥케큰 연방재무상은 의회가 소집된다고해서 당장에 경제문제에 대한 묘책이 생기는 것은 아니라면서 야당의 주장을 일축했다.

캐나다 실업률은 6월중 10.9%에서 7월에 11.8%로, 온타리오주 실업률은 1940년이후 최고인 10.1%를 기록했다.

30년 세계 경제공황때의 실업률은 25%로 4명중 1명이 실업자였다.

메트로·토론토의 실업사태는 여름방학을 이용, 직업을 가지려는 15세부터 24세까지의 학생들에게 큰 타격이 되고 있다.

작년7월의 학생 실업률은 8%였는데 비해, 올7월은 19.3%로 두배 이상 높다.

여름 한철 열심히 일해 여행을 간다든지, 등록금을 벌려던 많은 학생들의 계획이 좌절되거나, 좋은 직장을 고르기보다 최저임금을 받고서라도 무슨 일이건 하겠다는 학생이 늘고 있다.

◆실업률이 높아지자 고용센터에서 직장을 구하는 학생들의 경쟁도 치열해졌다.

전대통령 리셉션
28일 오타와 대사관저서
나이아가라 관광도

◆ 전두환대통령

(오타와=이태은지국장) 전두환대통령초청 교민리셉션이 오는 28일 하오5시 오타와의 한국대사관저에서 베풀어진다.(540 Acacia Av.)

오는 28일 하오 캐나다에 도착할 전대통령은 교민초청리셉션을 가진후, 트루도수상과의 정상회담등 공식일정에 들어간다.

교민초청리셉션을 준비하고 있는 관계자에 의하면, 이번 리셉션은 약400명 규모로 가든파티 형식을 취할 것이라고 했다.

토론토총영사관은 이번 초청리셉션에 참석할 토론토지역인사들을 임의로 선정했으나, 아직 대상자들에 공식통보는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캐나다외무부 소식통에 의하면 전대통령은 공식일정이 끝난후, 31일 나이아가라폭포를 관광할 예정이다.

국내선 항공요금 인하규제
지나친 덤핑으로 항공사경영난

캐나다 교통위원회(CTC)는 항공요금의 덤핑경쟁을 막기위해 오는 11월부터 싼요금을 규제할 계획이다.

연방정부소식통에 의하면 CTC의 새 규제는 스페샬항공요금의 인하한도를 정규요금의 75%까지로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 시피·에어(CP Air) 스카이버스의 토론토-뱅쿠버왕복요금은 현행 $309에서 이 규제를 받으면 $514.60으로 올라간다. 현행 정규요금가격은 $686이다.

캐나다내의 항공요금을 규제하고 있는 이 위원회는, 최근들어 항공사들이 과잉 경쟁으로 경영난에 봉착한 것이 이번 규제의 주원인이라고 말했다.

캐나다 국내선에만 적용되는 이 규제를 받게될 항공사는 에어·캐나다, 시피에어, 노드에어, 워데어등이다.

항공요금의 규제는 미국 및 극동등 국제선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으나 현재 토론토에서 동경, 서울, 홍콩까지의 노선은 KAL, JAL등이 CP를 뒤따르고 있어서 CP가 국내요금인상을 기회로 요금을 올리면 다른항공사들도 따라 올릴 확률이 크다.

가까운 미국에는 KAL을 비롯, 노스웨스트, 팬암등 굵직한 업체들이 서울, 동경, 홍콩노선에서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고, 미국정부의 항공요금 자유화 정책으로 요금을 올리기가 쉽지않다. 이에따라 토론토나 몬트리얼등지에서 출발하는 극동행 항공요금이 대폭인상 가능성은 희박하다.

미테랑 내년 방한
쉐이송, 한반도정책 균형노력

(서울)프랑솨·미테랑 프랑스대통령은 대 한반도 외교정책에 균형을 이루도록 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내년 한국을 방문한다.

이같은 사실은 방한중인 쉐이송프랑스외상이 가진 6일의 기자회견서 발표됐는데, 미테랑대통령은 남북한에 대한 프랑스의 조심스러운 균형 외교정책을 추구하기 위해 방한할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그런데 미테랑대통령은 대통령에 당선되기전인 지난해 2월 평양을 방문했었다.

한국일보
533-2361

미국 7월 실업률 41년만에 최악

(워싱턴)7월중 전국 실업률이 41년만에 가장 높은 9.8%를 기록, 경기회복의 전망에도 불구하고 금년에 실업률이 계속 오를것 같다고 경제관계자들이 밝혔다.

공식집계된 7월의 전국 실업자수는 1천80만명으로 실업률이 9.5%였던 6월보다 36만명이 증가했다.

이철희·장영자에 15년
이규광 피고에 4년선고

(서울7일=연합)사기및 외환관리법위반 혐의로 구속된 이철희·장영자피고가 각각 검찰의 구형대로 15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거액의 사채사기 주범인 장여인과 전 중앙정보부차장 이철희씨는 징역형과 함께 미화 1백만달러및 일본 엔화 1천3백만을 서울형사지방법원에 납부토록됐다.

한편 장여인의 형부인 이규광 전 광업진흥공사사장은 구형량보다 1년적은 4년 징역형과 1억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주말인 7일 하이웨이 10과 쎌번 부근에서 서로 반대편으로 가던 차가 정면충돌한 교통사고로 5명이 즉사했다.

10년 근속의 온타리오주 경찰이 목격한 사상 최악의 이 교통사고에는 헬리콥터까지 동원됐지만 중상을 입은 다른 2명도 중태이다.

남편 특사를 호소
한국서 반정부활동으로 복역중
LA타임스 이신범씨 부인 처지를 보도

(LA지사)LA타임스는 5일 반정부활동으로 체포, 현재 한국에서 복역중인 남편의 특사를 한부인이 호소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부인의 남편은 이신범(32)씨이며, 오는 8월15일 광복절특사를 바라고 있다고 전한 LA타임스는 이부인은 미시민권자로 아버지의 얼굴도 모르는 2살짜리 딸과 생활하면서 그동안 미국상원의원, 국무성, 기독교단체, 그리고 한국정부에 수차례 서신을 보내 남편석방을 호소했다고 보도했다.

이신범씨는 70년이후 반정부활동을 한 혐의로 체포된후 국제사면위로 부터 「양심범」으로 인정받았으며, 김대중씨와 함께 군법회의에서 재판받았고, 전두환대통령에 의해 9년형기중 1년이 감형되었다고 LA타임스지는 밝혔다.

미문화원 방화사건 11일로 판결 연기

(부산7일=연합)9일로 예정됐던 부산미문화원 방화사건 관련 16인 피고들에 대한 판결 공판이 11일로 연기됐다.

7일 부산지방형사법원은 재판연기의 이유로 "모든 증거와 증거서류를 보다 철저히 조사하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검찰은 2명의 피고에 사형을, 5명의 피고에 무기형을, 9명에는 3년내지 10년 징역형을 구형했었다.

한영수 의원에 1년 징역형

(서울7일=연합)서울형사지방법원은 7일 간통혐의로 기소된 한영수(47) 전 국회의원과 박인숙(34·가정주부)씨를 1년 징역형에 처했다.

이날 재판장은 이례적 조처로 한씨에 상고토록 권고했다. 한씨는 미국방문을 끝내고 돌아온 지난6월29일 고소됐었다.

한씨는 기소된 뒤 의원직을 자퇴했다.

한국에서는 간통죄로 기소될 경우 최고2년형을 받을 수 있다.

캐나다한국 외환은행
본점: 2 First Canadian Place #1140 364-2890
지점: 627 Bloor St. W. 533-8593

Merrill Lynch Royal Securities Ltd.
금·은·증권·Bonds·RRSP에 대한 투자는
361-3428(B), 447-1374(R) : 김상욱
증권은 경기변동에 따라 움직이는 특성이 있는데 경기회복 6개월 전부터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많은 투자 전문가들은 말하기를 "일, 이십년만에 한번 올수있는 절호의 기회가 증권투자에 오고있다"고 하는데 과연 그 근거는 무엇인가?

은하 보석
난금화상품 대리점
ROLEX
가장 믿고 살수있는 로렉스지정판매대리점
귀국선물
☎ 534 9977.7791 620A Bloor St. W.

미도파 백화점
454 BLOOR ST.W
(B) 536-1692
(R) 245-3539

강찬영 변호사
537-3171
537-3174
484 BLOOR ST. W. (Bloor & Bathurst)

강화수 종합보험

Canada Life 15년근무
상점보험, 생명보험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R.R.S.P 은퇴연금
B) 868-0922
R) 622-5147

광복절특별쇼
북미최대의한국식당
한식, 중화요리, 화식, 케네디안식
거구장
★출 연 : 배삼룡 · 배 성 · 김하정 · 김미리자
★일 시 : 8월12 · 13 · 14 · 15일(목, 금, 토, 일) 밤

배 성

배삼룡

○최고코메디안 : 배삼룡
○저음유명가수 : 배 성(힛트곡 "망향")
○정상급 가수 : 김하정(힛트곡 "야생마")
○신인유망가수 : 김미리자

김하정

거 구 장
5 BETHRIDGE RD.
☎ : 742-1618
◎7,8월 여름휴가중 영업시간
월~목 : 오후 2시~새벽2시
금 : 오전11시~새벽2시
토~일 : 오후 2시~새벽2시

DEAR MAILPERSON: PLEASE DO NOT DELAY. THIS IS A DAILY

East AsianLibrary
Rm B049, Robarts Library
University of Toronto, Ont
M5S 1A5

◆날으는 요정-호주대표 네도·발레리가 4일 플랫폼 다이빙 여자부 예선전에서 절묘한 몸매를 만들며, 수면으로 낙하하고 있다. (구아야길·에쿠아도르-)

번영회·동부장로 결승에 전국체전 축구 OB조 예선

코리아타운번영회(회장 장순채) 축구팀은 7일 센테니알·파 구장서 열린 OB(올드·보이)축구 준결승에서 승리, 오는14일 전국체전서 동부장로교회와 격돌한다.

코리아타운번영회는 A조 예선에서 배재를 2:1, 임마누엘교회팀을 1:0으로 누르고, A조 1위로, B조 2위 베델교회와 준결승전에서 대결, 연장전 끝에 3:2로 신승했다.

B조 1위 동부장로교회와 A조 2위 배배동창회팀파의 준결승에서는 동부장로교회가 승리했다.

이번 대회는 전국체육대회 예선을 겸한 것으로 결승전은 14일 센테니알·파 메인스타디엄에서 거행된다.

한편, 전국체육대회 청소년부에서는 지난 교민축구대회 공동우승팀인 한인장로교회와 모나미가 토론토대표로 출전, 몬트리얼, 런던대표팀과 격돌을 벌인다.

황용현부동산 이헌영씨 추가

황용현부동산의 세일즈맨이 늘어 이헌영씨가 새로 추가됐다.

지난 69년 캐나다에 이민, 그동안 개인사업을 하다가 지난 7월 온타리오 부동산에이전트 면허를 획득, 「황용현부동산」에서 함께 일하게 됐다.

이로써 황부동산은 황용현·강정숙·이헌영 3씨의 세일즈맨이 일하게 됐다.

◆이헌영씨

교 민 동 정

◆「동아일보」에 실린 안병원씨의 최근모습.

◆안병원 (토론토한인Y합창단및 한인성당성가대지휘자)=서울서 열린 제55차 국제Y즈맨 베계대회 참석겸 친지방문차 부인동반 고국에 다녀왔다.

서울 체류중에는 TV와 신문(「동아일보」 7월21일자)인터뷰등 분망한 일정을 보냈다.

부친 안석주(호석영)작사 「우리의 소원」을 1947년 서울음대 재학중 작곡, 민족의 노래로 전국적으로 애창되고 있는 작곡가이자 지휘자인 안병원씨는 8년전 토론토로 이민, 가게를 경영하는 한편 토론토한인합창단과 한인천주교 지휘자로 활약중이다.

안씨는 토론토 생활중 「한맘천주교가」(이석현 작사)·「이민의 노래」(이석현 작사)를 작곡, 애창되고 있다.

◆김복연 (영락교회집사)=이민후 줄곧 살아온 토론토를 떠나 캘거리로 이주한다. 부인 고신영씨와 2남1녀와 함께 이주를 결심한 이유는 좋은 비지네스 챈스를 잡은 때문이라고.

김씨는 그동안 영락교회에서 주일학교 부장을 맡는등 착실한 기독교인으로서 또한 훌륭한 테너로, 사진가로도 활동이 컸었다.

식자안내
컴퓨터 사진식자기
종전의 사진식자기보다
● 월씬저렴한 가격
● 빠른 써비스
책종류 환영함
토론토 한국일보
(416)533-2361

전대통령 방문 독자투고 二題

우리의 자세

최충식 (평화통일자문위원·토론토거주)

지난 17일 우리는 이곳 매스콤을 통하여 한국 전두환 대통령이 이곳 캐나다를 공식방문한다는 뉴스를 들었다.

한 마디로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렇지 않아도 지난 3월 캐나다에서 가장 많은 교민이 살고 있는 이곳 토론토에서 전두환 대통령 위해음모사건이 꾸며졌다 하여 본국기자들이 대거 몰려와 취재하는 소동을 벌였고, T.V.에까지 보도되어 국민들한테 개운치 않은 여운이 아직도 가셔지지 않은 지금 그 발표를 들은 것이다.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일부 몰지각한 교민들이 이곳 시민권을 얻어 가지고 줏대 없는 행동을 하다가 캐나다정부에 의해 「혼줄이 난」 사건인데도 본국의 매스콤은 대대적으로 경쟁보도를 하여 이곳 교민들 대부분이 관련된 듯한 인상을 주어 조금은 섭섭함도 있었다.

"어행수탁 조비모락", 즉 "고기가 노니 물이 흐리고, 새가 날아가니 깃이 떨어진다"는 말처럼 교민이 많다보니 그럴 수도 있지 않느냐고 자위하는 교민도 혹 있다지만 공산화된 월남은 소련으로부터 얻어쓴 빚을 갚기 위해 노동자들(그들이 그렇게 부르지만)을 소련 시베리아로 수송해 간다는 끔찍한 뉴스는 "빙산일각"에 불과하지만 우리는 「분단모국」을 다시금 더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하겠다.

피를 보는 동족의 싸움이 40여년간 잠재적으로 계속되는 우리 현실을 매듭지어 보고자 전대통령은 6천만 민족의 염원인 통일을 평화적으로 모색해 보자고 「1.2 제의」및 「6.5 제의」등 평화공세에 냉담한 북괴인데도 불구하고 실망하지 않고 그들을 국제사회로 끌어내기 위하여 금년 1월22일 남북한 「통일헌법」을 만드는데 서로 머리를 맞대고 생각해 보자는 제의를 하여 국제적으로 좋은 반응을 받고 있는 이때, 이곳을 공식방문한다는 뜻은 자못 그 의의가 크다고 보아야 하겠다.

이번 전대통령 캐나다 방문이 내가 살아가는 이곳 삶과 거리가 멀다고 생각한다거나, 흔히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의 입을 빌려 인권운운하는 것만으로 지난 3월 실추된 우리의 체면이 회복될까? 그렇다고 방문하는 첫날부터 태극기를 양손에 들고 뒤쫓아 다닌다 해서 진정한 환영이 될 수 있을까?

「사랑한다는 것은 단지 서로 마주보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고, 함께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것임을 우리는 체험적으로 알고 있다」고 한 생텍쥐베리의 작품 「인간의 대지」에서처럼 우리 6천만 민족의 염원인 통일을 평화적으로 해결해 보아야겠다는 「전대통령 제의」를 진정으로 이해하고, 「참여」함으로써 우리 교민의 참된 환영이 될 것이요, 「한민족」의 「얼」있는 마음을 가진 자세이리라.

또한 우리는 지난 3월 공동으로 피해 입은 체면손상을 되찾기 위해서가 아니라 고국에 있는 국민들 마음에 혹 있을지도 모르는 염려의식을 덜어주기 위해서도 경거망동한 언행을 금하고, 교민각자 마음속으로 따뜻한 환영을 함으로써 「미안했던 마음」을 조금이나마 덜어 보아야 되겠다.

88년 국제올림픽이 내 조국 대한민국에서 역사적인 그 개최와 함께 그해 겨울에는 이곳 캐나다에서 동계올림픽이 개최되며, 가까운 우방의 사이로 더욱 좁혀진 지금, 전대통령 방문은 국가간의 이익의 문제를 떠나서 「멀고도 가까운 나라」 사이가 되는 획기적인 계기가 될것으로 믿는다. 따라서 우리는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따뜻한 환영과 함께 「민족의 긍지」를 십분 발휘하는 기회로 삼아 가슴을 활짝 열고 환영함으로써 편안한 「나들이」가 되도록 모두 힘써야 지난 3월에 있었던 우리의 「허물」도 벗을 수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우리 6천만 민족의 염원인 평화통일을 앞당길 수 있는 「위대한 민족」의 슬기를 교민들 스스로 보여주는데 앞장서야 하겠다.

우스운 꼴·저질의 꼴

박 찬 도 (토론토 교민)

전두환대통령의 캐나다 방문을 기쁜 마음으로 맞아 들이지 못함은 유감이다. 물론 한국에서 어느 정도의 독재가 불가피함은 인정하면서도, 근원적 불의인 독재현상이 과하게 나타남은 불행한 일이기 때문이다.

그 독재의 책임은 국민대중에게도 있다. 독재국가가 창피한 것이라는 것을 안다면, 국민대중은 소극적이나마 독재권력에 반대해야 할 것이다.

광주사건 2주년 추도식에 참석한 사람은 2천명이고, 정부가 주관한 소위 단합식에 참석한 인원은 10만명이라고 보도되어 있다. 50대1의 비율이다. 단합식에 나간 10만명이 추도식에 참석안 할 망정 단합식에 불참했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독재가 생리적으로 싫지 않아, 철저히 반대를 하지 않는다. 이때문에 독재권력이 지속되는 것이다.

이곳 토론토에서도 교민들이 한국에 대해서 관심은 많다. 그러면서도 반독재활동에 꾸준히 참여하는 사람은 3만교포중 불과 10명내외다.(좌경 인사는 더 한 독재를 비호하는 더 지나친 독재인사니까 제외하고)

곧 전두환대통령이 캐나다를 방문한다고 말한다. 장여인사건, 우순경사건, 모교사 사건등, 엄청난 사건을 기억하면서도 그를 환영하는 교민이 적지 않을터이니 자유의식이 박약한나라 백성한테 독재가 안겨진다는 것은 오히려 당연한 일이다.

필시 「추도식:단합식」의 참석비율을 넬 「데모인사:환영인사」의 비율이라면 한국에서 수백년 수천년 후라야 될 것이 아닐까?

우리의 민도가 너무나 낮다. 지나치게 안 덤비거나 지나치게 덤비는 위축·남용의 독재생리가 언제나 가시어 질는지?

열렬히 환영하는 우스운 꼴을, 또 지나치게 욕하고 덤비는 독재제조국민의 저질의 꼴을 이곳 캐나다 자유민들에게 보이는 것은 한국인의 인상을 더럽히는 일이다.

캐나다 생활의 앞날을 위해서도, 후대의 자손을 위해서도 덜 깨인 사람들의 행동은 삼가했으면 좋겠다.

모기지의 상환·거치기간

경제생활과 우리 ④

VI 부동산상식=황용현부동산 제공

이자율 올라가자 거치기간, 리스짧아져

◉거치기간(Term)

거치기간(Term)이란 채권자(Mortgagee)와 채무자(Mortgagor)간에 맺어진 것으로 상환기간중 일정한 이자율등의 조건을 정한 기간이다. 따라서 3년거치 20년상환이란 3년 거치기간동안의 이자율만 정해진다. 나머지 상환기간의 이자율등의 조건은 3년후 재계약해야 한다.

요즘같이 경제가 침체되고 경기를 예측하기 힘든 경제상태하에 모든 투자가(Investor)들은 거치기간(Term)을 아주 짧게 하려고한다. 예년같이 5년 거치기간으로 하였다면 그사이에 이자율이 상승될 경우 손해를 볼수 있으니 다시 말해 장차 이자율이 상승할 전망이 예견되는 경제상태하에서는 거치기간을 짧게 하는게 상식이다.

이와같이 거치기간의 장단은 이자율의 전망에 의존된다. 현재 1년, 2년의 거치기간이 성행되는 이유는 장래 이자율이 상승될 전망이 있다고 보기 때문인것이다. 예컨대 현재 시중은행에서 1년 거치기간이면 19%하는 모기지가 2년이 되면 19.14%가 되고 3년이면 19.314%로 거래되고 있다.

채무자의 입장에서 볼때 상당한 불편함이 있게된다. 거치기간이 짧음으로해서 모기지계약을 자주해야하며 그러다보면 불필요한 비용이 들게된다. 또는 짧은 기간인고로 채무자는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마음의 평정을 얻지 못하고 이자율의 변동에 적지않은 신경을 쓰게 마련이다.

채권자는 이와 반대로 이자율의 상승에 따라 이득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짧은 기간의 거치방법으로 요즘 부동산 소유자는 물론 리스(Lease)를 갖고 사업하는 소매상인들, 특히 한인 그로서리, 버라이어티 스토아 운영자들에게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는 것이다.

예컨대 6개월 리스기간(Lease Term)이 있고, 5년 옵션(Option to renew the lease) 있는 가게인 경우 건물주인(Landlord)은 자신이 건물에 잡힌 모기지 거치기간을 5년씩 받아왔던 고로 리스기간도 5년을 주어왔었는데, 이젠 1년, 2년 많아야 3년씩 밖에 얻지 못하므로 가게리스도 이에따라 짧게 주게되는 것이다.

전물주인도 자신의 모기지 이자율에 대해 긴 기간동안은 예측할 수 없게 되었다.

이렇게 된다면 토론토 그로서리, 버라이어티 스토아의 리스도 짧게 될 가능성이 많아졌다. 아니면 예전같이 5년의 리스기간을 받는다해도 렌트가 해마다 올라가는 방법을 건물주인은 취할 것이다. 요즈음 종종 옵션을 받지 못하는 가게가 많아지는 것도 이런 이유인 것이다. 옵션이 없고, 짧은 리스기간은 벌써 큰 쇼핑센터에서는 오래전 실시해왔던 것이다. 가까운 장래에 군소 쇼핑프라자도 이렇게 되지 않을까 예상된다.

◉상환기간(Amortization)

매월 원금과 이자를 조금씩 갚아나가면서 이것이 다 갚아졌을 때까지의 걸린 기간을 말한다. 다시 말하면 현재의 부동산 모기지는 대개 20년에서 30년의 상환기간을 잡고 월불입금을 계산하고 있다. 대체적으로 상환기간이 길면 월불입금은 적어지지만 그 불입금 속에 이자부분의 비율이 더 많게되어 채무자(Mortgagor)는 불리하게 된다. 상환기간의 장단은 월불입금의 액수를 조정, 결정하는데 역할을 한다.

<단 편>

불루어스트리트의 하루〈2〉

이 태 준 (문협회원)

"당신은 그 건물을 사라고 끈질기게 권유하면서 약속한 말을 잊었소?"

자신의 경제력 난관이 1년만에 급변해버린 국내의 경제난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건물을 사게 된 동기가 강대식의 권유 때문이었다고 생각한 김여사의 목소리는 점점 날카로워가고 있었다.

"제 기억에는 특별히 약속한 것은 없는데요."

그동안 거래를 하면서 터득한 경험으로 김여사처럼 거칠고, 괄괄한 성격의 여성은 자꾸 부채질을 해서 성질의 불꽃을 속히 산화시켜 버리게 하는 것이 최상의 해결책이라고 생각한 강대식은 점점 능청을 떨어 그녀의 성질을 돋우기 시작했다.

"뭐라고! 1년뒤에는 곱배기 값으로 팔아준다고 떵떵거리며 큰소리를 쳤지 않아?"

그녀는 몸을 바르르 떨며 앙칼지게 쏘아 붙였다. 폭발직전에 있는 그녀의 성격에는 점화의 에너지가 필요했다. 그것은 누구보다도 강대식이 잘 알고 있었다.

"좋아요. 그럼 내가 모게지 보증을 서드릴테니 건물명의는 저와 공동으로 합시다."

"이 날도둑놈 같은 자식아, 다운페이를 10만불이나 한 건물을 보증 조금 서주고 공동명의로 하자고? 왜 거저 먹겠다는 소리는 못하냐?"

참다못한 그녀는 벌떡 일어서며 강대식을 향해 의자를 집어던졌지만, 강대식은 벌써 뒷길로 빠지는 계단을 뛰어오르고 있었다.

◆

도봉식품점의 윗층에 자리잡은 한일여행사의 사무실에서는 비교적 한가한 점심시간 무렵을 이용해서 침술사 송씨와 여행사 사장 이도의의 맞선 점심내기 장기판이 벌어지고 있었다.

"오늘도 내가 지면 아예 장기판에서 손을 떼겠읍니다."

연 삼일째 이도의의 점심값을 물어온 송씨가 입맛을 다시며 장기판을 차려놓고 이도의를 기다리고 있었지만, 이도의는 여유만만한 미소를 흘리며,

"오늘은 내가 그냥 사겠네, 수도 부족한 자네를 끄셔서 공짜 점심으로 배를 채운다고 남이 알면 욕해요."

하며 송씨의 부화만 돋울뿐, 쉽사리 대전을 해주지 않았다. 물론 이것은 송씨의 약을 올려놓고 쉽게 이기려는 이도의의 작전중의 하나였다.

"패군지장은 유구무언이라고, 할 말은 없읍니다. 연막전술은 그만 쓰시고, 어서오십시오."

속은 된장찌게가 끓듯이 부글거려도 상대방이 선배고, 아쉬운 쪽은 자신이라 송씨는 애걸을 할 수 밖에 없었다.

"자네가 정 그러면 나도 남잔데 도전을 받기는 받겠네만, 행여 남에게 날마다 내 점심을 대접하고 있다고 말하지 말게."

"알겠읍니다 선배님! 제가 복수를 할 때까지는 벙어리라도 되라면 되겠읍니다."

상대방의 수를 거의 알고 있는 송씨와 이도의의 장기대전은 처음부터 불을 튀기는 열전이었다.

"자! 여기 한신대원수가 나가네, 물르기는 없네!"

송씨의 면포에 면상을 놓으며 이도의가 다짐을 했다.

"언제는 물르기가 있었던가요? 한신은 반역죄로 목이 날아갔다는 것을 아세요?"

졸을 옆으로 몰아 상길을 트면서 하는 송씨의 대꾸였다.

"흥! 또 그 졸수를 쓰려고? 자네 장기는 어째 날이 갈수록 자꾸 졸렬해 지는가?"

"선배님은 장기를 말로 두십니까? 여기 번째의 참을 받으십시오."

마를 면포옆에 붙이며 이도의의 얼굴을 힐끔쳐다 보았다.

"날씨도 덥고 배도 고프니 자네 땀내지 않게 빨리 끝내겠네. 장자방을 우진으로 기용했네."

포의 다리를 놓아주기 위해서 우측포 옆에 마를 옮기며 이도의는 여유스럽게 담배에 불을 붙였다.

장기는 중반전까지 우열을 가릴 수 없을 만큼 비등한 상태를 계속하다 송씨의 마장에 이도의의 차가 떨어져 나가면서 이도의가 몰리기 시작했다. 그때 송씨의 처가 급한 숨을 몰아쉬며, 여행사문을 열며,

"여보, 손님왔어요."

하고 소리를 질렀으나, 이도의만 고개를 쳐들고 바라볼 뿐, 한참 승세를 몰며 신바람이 나있는 송씨의 귀에는 마누라의 목소리가 들릴리가 없었다.

"아니 여보! 급한 손님이 와 계신다니까요?"

다시 재촉한 후에야 돌아보지도 않고,

"어디가 아프데?"

퉁명스럽게 말끝을 흐렸다.

"발목이 삐였데요."

"그 정도면 메이드인 코리아(한국재의 별명)로 보내."

한국재한의사와의 잠재해 있던 경쟁의식이 이런 귀찮은 상황에서는 가끔 권위를 앞세워 그를 내리누르려는 허세로 변했다.

"어떻게 오신 손님을 다른 곳으로 보내요?"

송씨 내외간의 거북스러워 가는 분위기는 불리한 형세에 놓여있는 이도의에게는 천만다행이었다.

"이사람아! 손님이 왔다는데 가봐야지. 나도 묘수가 있기는 있었는데, 자네가 정 억울하면 오늘은 내가 졌다고 하세."

하며 판을 쓸어버렸다. 송씨는 하도 어이가 없는지 한참이나 이도의를 바라보다가,

"내, 선배님이 꼭 그러실 줄 알았읍니다."

체념의 말을 남기며 나가는 그의 거치른 발걸음 소리에는 화가 잔뜩 나있었다.

◆

한 여름의 이글거리는 태양은 차량과 인파로 북적거리는 불루어스트리트를 푹 삶고 있었다.

아스팔트길은 늘어진 엿가락처럼 찐득거렸고, 오가는 행인들은 벌겋게 달아오른 얼굴 위로 빗방울같이 흘러내리는 땀을 연신 닦아내며 더운 숨을 토해냈다.

코리아 타운의 가장 서쪽 끝에 위치한 한일기원에서는 아랫층 한양식품 주인 김응서와 원장 장갑주가 더위도 잊은채 유리창 너머로 희한한 구경을 하고 있었다.

"오늘은 저 최갑투가 단단히 걸렸는데."

김응서가 흥미진진한 얼굴로 중얼거리며 비실비실 웃었다.

"장자감투는 모두 뭐집어쓴 최감투가 마누라한테는 쪽을 못쓰는 구먼."

〈계 속〉

FALLIS U-SAVE CASH & CARR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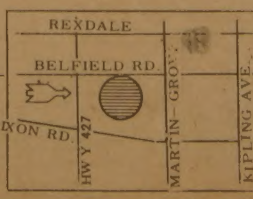
◇◇ 스 페 샬 ◇◇

⊙ Pepsi~Cola(can 10온스×24) $5.99
⊙ Diet Pepsi (〃) $5.99
⊙ Coca-Cola (〃) $5.99
⊙ Sunpac Juice $7.50

⊙ 이외에도 많은 SPECIAL 품목이 있읍니다.

* 영업시간 : 월~금(오전8시—오후4시)
토 (오전8시—오후2시)

151 BELFIELD RD. REXDALE, P.O.
TORONTO, ONTARIO M9W 1G8
Tel: 249-8411



이전개업인사

의사 왕운린

(카나다의사면허와 미국 미시건주 의사면허 소유)

금번 8월3일부터 600 SHERBOURNE ST. (at Bloor St.)의 ROSEDALE MEDICAL CENTRE 402호에 이전 개업 하였읍니다.

⊙건강상담, 종합진찰, 혈액검사, 간기능검사, X-레이, 심전도 울트라사운드검사, 산전 산후건강관리및 분만, 소아건강, 가족계획 상담등.

※ Doctor's Hospital Active Staff Member로서 입원치료 가능합니다.
※ 응급및 중환자분은 Doctor's Hospital 응급실로 오시면 됩니다.

*근무시간 : 월~금 : 오전 10~오후 7시 , 토 : 오전 11~오후 3시

☎ : (B)968-1543 (R)363-9196

「바바라」에 물으세요

▲필자

이것이 북미생활이다

남이 제아이 끌어안는것 좋아안해

음식주문…메뉴로 가리키는 방법도

○문: 얼마전 저의 장인이 한국서 이민오셨는데 워낙 아기를 귀여워하시는 분이라 아기를 보는대로 안아주시기 때문에 걱정입니다. 제 생각으로는 이곳 사람들이 자기 아기를 다른사람이 끌어안는 것을 싫어하리라고 생각되는데요. 〈해밀턴 김〉

●답: 네, 어느정도는 그렇습니다. 한국에서는 어른들이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거나, 어린이를 안아주는 것이 자연스럽게 여겨지지요. 제가 처음 부산에 도착했을때 4개월된 아들을 데리고 갔는데 지친몸으로 식당에 들어가니 여종업원이 제 허락도 없이 아기를 안아갔읍니다.

마침 피곤했던터라 고마왔으나, 얼마후 한국사람들은 다른사람이 아기 보살펴주는 것을 별로 기분나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읍니다.

물론 북미부모들도 자기 아이들을 귀여워해주는 것을 반기지만, 외부인에 대한 경계심이 아주 강합니다. 특히 감기나 다른 질병이 감염되지 않을까 걱정하게 되므로 다른 사람들이 아기를 껴안으면 달갑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장인께 이곳의 다른 풍습과 부모들이 아이들의 건강에 대해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어린이들을 보면 웃음을 짓거나 가볍게 손목 잡아주는 정도가 바람직합니다.

아기의 부모에게도 귀엽다거나 예쁘다, 건강하게 보인다등의 인사말을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아이에게 접근한다면 부모들이 신경을 쓰게될 것입니다.

○문: 저는 최근 이곳에 이민왔는데 이곳식당에서 음식주문하는 법을 잘모르겠읍니다. 한국에도 서양식 레스토랑이 있어 곧잘 아침을 거기서 먹었읍니다만, 여기서 제가 「달걀후라이」를 주문하면 제가 바라는 달걀후라이가 아닙니다. 요령을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스카브로 Mrs. 김〉

●답: 만약 어느 식당의 단골손님이 되어 그집 메뉴를 훤히 알고있으면 훨씬 쉽겠지요. 또 먹고싶은 음식의 그림을 메뉴에서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주문해도 좋겠지요. 다른사람이 주문할때 속으로 음식이름을 외우며 연습할 수 있겠지요.

이 문제는 제가 한국의 식당에서 한식을 주문할때도 종종있었읍니다. 맛이 좋을것 같아서 그이름을 외웠다가 주문하면 그 맛은 좋지만 제가 예상하지 않았던 음식이 나왔지요.

미국식당에서 아침에 주로 주문되는 달걀요리는 서니·사이드·압(한쪽만 지진것), 오버-이지(반숙), 스크램블드·에그, 에그스·베네딕트, 그리고 오므렛등이 있으며, 어떤 식당에서는 포취드·에그(짓이긴 계란)요리도 합니다.

아무쪼록 이곳 음식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치정과 恐怖의 추리소설 第5의 사나이 〈44〉

金聖鍾작

殺意의 斷層 ⑪

"그래 그놈한테 5백이나 줬단말이냐"

누이의 당돌한 말에 그는 잠시 놀란 표정이다가 좋다고 고개를 끄덕였다.

『피워라. 언제부터 담배를 피웠지?』

『심심하거나 속상하면 피우곤 했어요.』

그녀는 담배에 불을 붙여 연기를 깊이 빨아들였다가 후우하고 내뿜었다. 그러한 그녀를 두봉은 복잡한 표정으로 바라보았다.

그녀는 절망적인 기분에 싸여 담배를 피웠다. 우물쭈물하지 말고 단해버리는 거야. 이젠 막판이야. 죽기 아니면 살기다. 아무리 못돼도 죽는수 밖에 더 있을라구. 그녀는 담배를 비벼끄고 태세를 갖추었다. 그동안 그녀의 오빠는 참을성 있게 기다리고 있었다.

『저기… 지난 여름이었어요. 아빠가 해외에 출장간 사이에 부산 친구한테 놀러갔더랬어요. 해운대에 있는 어느 호텔 나이트클럽에서 모르는 남자와 춤을 추었는데… 그만 너무 술을 많이 마셔가지고 방에 끌려갔나봐요.』

그녀는 오빠를 마주 바라볼 수가 없어 시선을 밑으로 떨어뜨렸다. 그리고 핸드백줄을 만지작거렸다. 누이를 바라보는 두봉의 눈은 등잔만하게 확대되어있었다.

『그래서?』

『너무 취해서 저는 정신을 잃었어요. 그 다음에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겠어요. 깨어보니까 아침이었고 낯선 남자 곁에서 자고있었어요.』

목소리는 어느새 모기소리만하게 작아져있었다. 스스로 좋아서 외간남자와 정을 통했건만 차마 그렇게 말할 수는 없어 이렇게 적당히 거짓말로 얼버무렸다. 정신을 잃고 남자한테 일방적으로 당했다는 것은 한 마디로 강간당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은 자발적인의사에 따라 가진 관계, 즉 화간과는 의미가 아주 다르다.

두봉은 숨어지게 여동생을 보고 있다가 갑자기 시선을 밑으로 내려 담배를 만지작거렸다. 그는 당황하고 있었다. 누이의 말을 어떻게 받아들여야할지 얼른 판단이서지 않은 것 같았다.

『그러고 헤어졌는데… 물론 서로 이름도 주소도 모른채 헤어졌는데… 두달쯤 지나 그 사람이 나타났어요. 나타나서는 돈을 내라는 거예요. 돈을 내지않으면 남편한테 비밀을 폭로하겠다고 위협했어요.』

『얼마를 달래?』

그는 덤덤하게 물었다.

『5백이요.』

『간도 크구나. 그래서?』

『할수 없이 5백을 줬어요.』

『뭐라구! 아니, 5백이나 줬어?! 한푼도 깍지 않고 말이야?!』

무덤덤하던 목소리가 쇳소리를내며 튀어 올랐다.

『아이, 오빠, 목소리가 너무 커요.』

『5백이나… 5백이나 줬단 말이지. 하여간 양쪽다 대단하다.』

그는 담배에 불을 붙인다는 게 필터에다 붙였다. 그것을 재떨이에다 버리고 두손을 마주 비볐다.

문자는 입술을 지근 지근 깨물었다.

『자기 거래은행 온라인 넘버를 아르켜주면서 거기다 입금시키라고 했어요. 그래서 거기다 입금시켰어요.』

『넌 지난 봄에 내가 50만원만 빌어달라고 했는데 거절했어. 그런데 생판 모르는 놈한테 5백이나 줘어? 그야말로 너무 하는데….』

『그게 어디 준거예요? 뺏긴거지. 그렇게 말하는 오빠는 그동안 빌려간 돈 한번 갚기나 했어요? 딱 한번 거절한 걸 가지고 그렇게 섭섭하게 생각하시면 어떡해요?』

朴 男 그림

동화적·환상적 작품 장욱진화백 개인전

(LA지사)다년간 서울대학교 미술대학교수로 봉직, 정년퇴직한 원로화가 장욱진씨(66)의 개인전이 8월7일부터 22일까지 LA 갤러리스코프에서 열리고 있다.

동화적이고 환상적인 소품을 즐겨 그리는 장화백은 본국에서 전시되지 않은 유화, 판화, 먹그림등 50여점을 가지고 국외에서는 처음 개인전을 열었다.

장화백은 현재 충북 수안보의 한 초가집에서 작품제작으로 나날을 보내고 있다. 이번에 전시될 작품 사이즈는 대부분 3,4호 정도.

◆장욱진 화백의 작품「무 제」

비데오 레코드業 급성장

지난75년에 선을 보인 VCR(비데오·레코드)의 판매가 해가 갈수록 급성장 81년도 판매량은 전년대비 6.9%증가한 1백36만대로 판매액 10억달러를 기록했는데 올 판매량은 전년대비 47%증가한 2백만대에 달할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VCR은 비데오 카메라와 동시에 사용될수있는 휴대용이 인기를 모으는 반면 탁상용 모델의 판매는 둔화될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있다.

현재 시판중인 휴대용 가정용파 같은 성능, 특색을 갖추고있어 가정용 영화제작을 즐기는 구매자들의 인기를 끌고있어 전문가들은 지난해 VCR총판매의 15%를 차지했던 휴대용이 올해는 30%선까지 달하게 될것으로 예상하고있다.

THE KOREA TIMES is the only Daily(Except Sundays serving the Korean-Canadians Fri. & Sat. issues printed together. Established 1974. Subscription $99. /yr. $9. /mo. 구독료(선금) 년$99. 월$9. 영구구독 : $500, ISSN 0712-1733 2nd Class Mail 5248

한국일보는 가장 넓은 지역에서 가장 많이 읽히는 일간신문입니다

새로 개업한
서울식품 서부지점
☎: 243-9544
1391 WESTON RD
※좋은 품질로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봉사합니다
★배추김치·총각김치·파김치·부추김치·오이소백이

三國志 434

글·高羽榮·그림

한국비데오센타
— 각종 비데오테잎 대여전문
— 품질보장 · 신용본위
— 비데오 기계 · TV판매
☎ 532-0210 손병헌

서울대학교 동창회
'82 야유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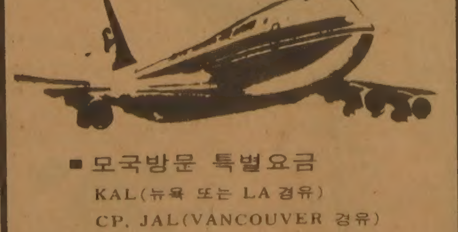
본 서울대학교 동창회 캐나다지부의 1982년도 야유회 모임을 아래와 같이 갖고저 하오니 동문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개별 연락 드리지 못하오나 꼭 나오셔서 짧은 여름의 긴 한나절을 함께 즐기십시요.

＊아 래＊

○서울대학교 동창회 '82 야유회
○일 시 : 1982. 8. 21(토) 오전11시 (우천시 1주 순연)
○장 소 : Rown Tree Mill Park (Islington & Finch, Rexdale) (작년도와 동일장소임)
○연락처 : 신동운 회장 ☎ 499-2348
주병돈 부회장 ☎ 671-1909
임윤식 총무 ☎ 638-6919

서울대학교동창회 캐나다지부
운영위원장 신 동 운

IATA
여름철 특별봉사
○ 서울단체 매일출발
○ 방문초청 특별요금
이제는 친구및 3촌 이상 친척까지 초청의 문호 개방.
단: 항공료와 체재비 부담조건.
○ 국내, 국제항공표 일체
신세계 NEW WORLD TRAVEL
봉사와 개척의 여행사
712 Bloor Street West, Toronto M6G 1L4
536-2155 · 2156
R) 492-7525 김 창 범

제일여행사

■ 모국방문 특별요금
KAL(뉴욕 또는 LA 경유)
CP. JAL(VANCOUVER 경유)
■ 국내, 국제 항공권 일체
■ 각종단체 관광요금
■ 여권, VISA 수속 서비스
■ 방문초청, 이민초청
(제반수속 안내및 작성)

(B)535-2377
(R)366-0864
649A BLOOR ST. W.
유지원
신용목

한국일보
우리의理想은健全한新聞

구독신청은 533-2361

是正안될땐 對應策뭔가

文公委 "民族自尊에 중대위협" 決議文채택

商社추방·斷交 용의는 — 질문
日政治결단 是正돼야 — 답변

국회文公委는 5일 李奎浩문교, 李振羲문공장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최근 對內外的으로 물의를 빚고있는 일본교과서의 對韓역사 歪曲문제에대한 보고를 듣고 정책질의를 벌인뒤 일본교과서왜곡 시정을 강력히 촉구하는 내용의 決議文을 채택했다.

이날 질의에서 民正黨의 南載熙 李寧熙 崔昌圭 李大淳 具龍鉉 吳制道 沈相宇 金晉洙 李潤子 李樂熙 民韓黨의 辛相佑 林在正 李義永 金秉烈 康源采, 국민당의 姜棋弼 朴在旭, 議政同友會의 金吉俊의원등은 『역사교과서歪曲사건은 어떤 일이 있어도 반드시 是正되도록 강력한대응책을 써야한다』고 강경한 주장을 펴면서 『이번 사건을 두고 정부는 절대로 후퇴하거나양보해서는안된다』고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회의에서 與野의원들은 『이문제는 經協과 분리해야하며 經協때문에 양보하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안된다』고 주장하고 『만일일본이 經協을 전제로 타협을 해올 경우 정부는 어떻게대처할것인가』고 추궁했다.

의원들은 이날 만일 일본측이 한국정부의 공식是正요청에도 불구하고 시정에 응하지않을경우 우리정부는 확고한 대응책을 마련하고있는가고 집중추궁 했다.

특히 林在正의원은 대응책에관해 駐日대사관을 철수하고 駐韓일본商社를 추방할용의가 없느냐고 超強硬대책을 촉구했고, 沈相宇의원은 일본상품에대한 不買운동과 일본인관광객의 한국入國을 거부하는운동을 전개하라고 강경對應을 촉구했다.

이들은 특히 국민학교3학년교과서에서 柳寬順烈士를 뺀 이유를 묻고 우리 국민의 民族史觀정립과 主體性확립을 위한 민족교육의 방향과 내용이 무엇이냐고추궁했다.

李奎浩문교부장관은 답변을 통해 『민족적인 大義名分을 손상시키면서까지 어떠한 정치적이익이나 경제적 이익을 생각하지는 않겠다는것이 정부의 對日 기본방침』이라고 밝히고 『이미 확고한 정부의 입장을 일본측에 文書로 전달한만큼 일본측의 반응을 보면서 적절한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말했다.

그는 특히 『韓日經協문제와 교과서문제는 전혀 별개의 것이라고 전제한뒤 『우리의 경제收支가 좋아지고있으며 借款제공을희망하는국가들이 몰려드는 상황에서40억달러 때문에 민족의 대의명분을흐리게할생각은전혀없음을분명히밝힌다』고말했다.

◇국회決議 4개항

『대한민국 국회 文教公報위원회는 일본검인정교과서내용의 왜곡기술로 빚어진사태를 논의한끝에 다음과같은 결론에 도달했다.

이번 일본 검인정교과서내용중 한국관계記述이 일본文部省의 주도하에 왜곡되었다는 사실은 일본정부의 공식적 의사표시로 볼수 있어 이를 크게 중요시 한다.

더우기 日帝의피해자와 증인뿐만아니라 영원히 치유될수없는상처마저도 엄존하고 있음에도불구하고 最近世史의史實을 왜곡했다는것은 우리민족自尊에 중대한위협을 주는것이라하지 않을수없다.

이같은 진실된 역사를두고 아직도 시정되지않고있어 이와같이 일본및 우리정부에 그시정과 반성을 강력히 요구한다.

▲일본정부는 왜곡된 검인정교과서 내용을 즉각 시정하여 韓日양국이 호혜평등의 원칙위에서 선린우호 관계를 지속할수 있도록 할것을 촉구한다.

▲역사왜곡이 시정되지아니하므로 인하여 韓日양국에 앞으로 야기되는 모든 사태의 책임은 전적으로 일본측에 있음을 밝혀둔다.

▲정부는 일본검인정 교과서개편과정에서 즉각적인 시정방안을 강구하지 못하고 미온적인 對일본교섭으로 국민을 실망시킨 책임을 통감하고 앞으로 강력하고도 실효성있는 대응책을 강구할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정당한 국민의 여론을 받들어 문제해결을위한 국회차원의 다각적인 노력을 계속할 것이며 투철한 역사의식을 가지고 이 사태의 추이를 예의주시할것을 다짐한다.』

◇歷史의 눈 5일열린 국회文公委는 문제의 日本역사교과서들을 풀어헤쳐 놓은채 일본의 「歷史歪曲」 행위를 규탄하는 의원들의 怒聲으로 가득했다. 李奎浩문교장관㊧과 문교부직원 들이 나란히 앉아있다.

史實왜곡은 百67군데
國史편찬위國會보고 日高校교과서 16種서

문교부 국사편찬위원회(위원장 李鉉淙)는 5일 내년부터 일본고교생들이 사용할예정인 역사·사회교과서 16종을 모두 입수, 정밀분석한결과 드러난 한국관계史實왜곡내용을 공식발표했다.

국사편찬위원회가 7월31일부터 지난3일까지 관계전문위원들을 동원, 분석한 교과서는 「日本史」12권중 9권, 「世界史」14권중 5권, 「現代社會」21권중 2권등인데 한국 고대사의 漢四郡설치에서부터 일제말기 太平洋전쟁때 징병부분에 이르기까지 24개항목에 걸쳐 1백67군데가 사실과다르게 기술돼있음을 확인하고 이를 국회 제출자료로 내놓았다.

일제침략이전의 사실중에서 왜곡기술한 교과서내용을 유형별로 보면 ▲역사기록에 나타나있는 부족이나 고대국가의 위치를 틀리게 기술한것 ▲漢四郡의 범위를 과장기술하여 한국고대문화가 중국문화의 영향아래 이루어진것처럼 기술한 것 ▲日本이 百濟문화를 전수해간 사실을 고의적으로 은폐하고대신「任那경영설」을 내세워 과거일본이 한반도를 지배했다고기술, 근대한국침략을 합리화하려한점 ▲왜구의 약탈행위를 무역활동으로 기술한것 ▲壬辰倭亂을 왜곡기술한것 ▲雲揚號사건·江華島조약·壬午軍亂·東學농민운동·閔妃시해사건을왜곡기술한것등이다.

日교과서是正 강력反對
自民黨·文部省 "문교政策上 있을수없다"

【東京5日=宋孝彬특파원】 교과서왜곡기술을 둘러싼 한국측의 강경한 항의에 대해 스즈끼수상이 조기해결을 지시했음에도 불구하고 文部省과 自民黨문교위원회는 고교검정교과서 歪曲부분의 수정에 강력이 반대하고있어 韓日간 교과서문제 조기타결은 어려울것으로 보인다.

文部省과 自民黨의 문교위원회는 5일 歪曲교과서문제를 협의한끝에 『외국의 항의로 검정교과서를 재수정하는 것은 검정제도상 있을수없다』는 결론을내리고 문부성이 한국과 중공등 관계국에게 검정교과서의 내용과 제도를 재차 설명, 이해를 구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이같은 방침에따라 문부성은 이날 駐日한국대사관에검정교과서의 내용을 재차설명하겠다는 뜻을 통고해왔으나 한국대사관은 설명보다 歪曲부분의 수정이 앞서야한다는 이유를들어 이를 즉각 거부했다.

일본문부성과 외무성은 이날 사무차관등 관계관회의를 열고 검정교과서에대한 대책을 협의했으나 『어떤방법으로라도 검정내용을 고쳐야한다』는 외무성과 『검정제도상 고칠수없다』는 문부성이 맞서 결론을 내리지못했다.

미스미(三角) 문부성사무차관은 한국과 중공으로부터의 요구에따라 검정교과서를 재수정한다면 문교정책의근본이 흔들리는것으로 응할수 없다』고 말했다.

오늘韓·佛外相회담
세송 어제來韓

클로드·세송 프랑스外相이 李範錫외무장관의 초청으로 5일하오 5시10분 KAL편으로 來韓했다.

세송외상은 6일 李장관과 韓佛외상회담을 갖고 양국의 공동관심사를 논의한다. 한편 全斗煥대통령과 金相浹국무총리서리를 예방, 양국의 우호협력증진방안에 관한 의견을 나누고 7일 離韓할 예정이다.

韓佛외상회담에서는 ▲프랑스의 북한승인 움직임과 ▲프랑스의 우리나라 5차5개년계획 大型프로젝트 참여문제 등이 거론될것으로 보이는데 우리정부는 이들 문제에관한 세송외상의 설명을 들은뒤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할것으로 알려졌다.

프랑스는 우리나라의 ▲서울—大田간 고속전철 ▲平澤 LNG저장시설 ▲釜山지하철 ▲原電11·12호기등의 프로젝트에 참여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日本곡이래야만되는가 <5>

千寬宇
〈史學者·한국일보 고문〉

마침 배달된 東京의 교포신문을 펴보니 民團에서도 일본 문부성 당국자에게 「要望書를 手交」했다 한다. 『우리在日한국인은 과거 일본에의해 強制連行된 본인들이며, 그결과로 일어난 일본에서의 差別狀況을 짊어지고있다』고 실감있게 서두를꺼낸 이 「요망서」는 다음의 여섯가지를 들고 있다.

첫째 일본의 「조선進出」은 「한국侵略」으로 되어야 한다. 둘째 이른바 東學亂은 「排外的인 농민반란」이 아니라 「민중봉기」이어야 한다. 세째 關東大震때의 학살은 「수만인에 이르렀다」고 숫자를 표시해야한다. 네째 3·1운동은 「데모와 폭동」이 아니라 「독립운동」이어야 한다. 다섯째 強占末期의 徵用은 「강제적으로 모아」나 「징용령을 적용하여」가 아니라 「강제로 연행하여」이어야 한다. 여섯째 韓國戰爭은 「38도선에서 격렬한 전투가 시작되어」가 아니라 「북조선이 한국을 침략하여」이어야 한다.

매우 소상한지적인데 이 역시 「近世史에 한하여」라는 條件附의 지적이었다. 그래서 한가지 궁금한것은 이번 일본교과서에서古代나 中世에 관한 편견이나 왜곡은 어찌되었나 하는 점이다. 最近의 일들은 현대한국인에게 直接的인 반응을 일으키게 되는데비하여 고대니 중세니 하면 그만큼 關心度가 엷어서 그런지, 아니면 고대나 중세는 비교적 專門的인 판단을 요하기 때문에 그런지 또 혹은 지금 中國·東南亞 동 소아시아의 관심사가되고 있는 문제점이 일본 近代—現代의 膨脹에 걸려있어서 우리도 부지중에 그런 視覺에 사로잡혀서 그런지 아뭏든 古代—中世의 문제가 이번에 어떻게 처리되었는가, 이 시간 현재로는 자세히 알려져있지않다. 우리가 古代—中世에도 주목해야 하는 것은 무슨 好古癖을 만족시키자 해서가 아니다. 적어도 역사교육을통한 일본인의 우리에 대한 誤解나 偏見은 바로 고대사에서비롯되고 있기 때문이며, 이것을 바로 잡지 않고서는 바로 접절한 뿐더러 그대로 남아 처지기 때문이다.

古代

神功皇后의 三韓征伐이라는 일본설화가 있다. 이 일본 황후가 신라를정복해서 新羅王을 「말 飼育人」으로 삼았으며 이 소식을 듣고 제발로 항복해 온 百濟王과 高句麗王을 「마른」으로 삼았다는 것이다. 하도 허황해서 戰後에는 이것을 교과서에서 뺐다고들 었지만, 戰前에는 이 실없은 이야기를 버젓이 교과서에 올려 일본 소년에게는 우월감을 심어주고 조선 소년에게는 기를죽였던 것이다. 이런 분위기에서 자란 世代가 어떻게 되었겠나. 서로의 不幸은 컸다.

日의歪曲·편견 三韓때부터
任那日本府說 아직도 남아

그러면 古代—中世史에서는 무엇이 문제인가. 1976년이니까 만6년전인데, 이때 벌써 李元淳씨가 일본사 교육에 있어서 한국사 관계 素材의 문제점을 12개항으로 나누어 정리해 놓은것이 있다. 고대에서 현대에까지 걸친 이 글은 우리 對日弘報用 잡지에서도 日譯돼서 실린 것으로 기억되고, 또 그루렵 서울에서열렸던 韓日역사교육 전문가들의 심포지엄에서도 이 主題가 거듭 발표되었던것으로 기억된다.

李元淳씨가 지적한 6년전의 문제점 (1)은 우리 역사의 起點과 「三國」에관한 것이다.

우선 일본의 「일본사」교과서 가운데에는, 우리역사를 漢四郡설치부터 서술하기 시작해서 마치 韓民族의 역사가 漢人에대한 附庸으로 개막된듯한 인상을 주고있는 것이 적지않았다한다. 「세계사」교과서에는 우리의 청기문화와 衛滿조선에 언급한것이 있다한다.

또 高句麗를 퉁구스族이라 한것도 적지않았다 한다. 퉁구스라면 肅愼—挹婁—勿吉—靺鞨—女眞으로 이어지는 만주족이라는 것이 상식인데 고구려가 숙신—읍루…와 同系라는 무슨 결정적 근거라도 있는 것일까. 더구나 고구려는 퉁구스族이고 백제·신라는 韓族이라고 갈라놓으면 고구려가 결국 한국사 圈外로 밀려나갈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보다도 우리의 「한국사」교과서가 일본 역사의 기점이나 邪馬臺國의 出自같은것을 다루었다는 말을 못들었다. 그럴 필요가 별로 없기 때문이다. 이런 눈으로 볼때, 「세계사」의 일부라면 容或無怪이지만, 일본의 「일본사」교과서에서 그들과 직접 관계가 없는 漢四郡이나 高句麗의 出自를 다루어야 할 적극적인 이유가 무엇인지부터 잘 알수가 없다. 또 그것을 굳이 적어놓기로 한다하더라도 부정확한 서술로, 언필칭 友邦이라는 서남의 『자주적 역사 展開相에 결정적 손상』을 줄 필요가 있는 것일까.

문제점 (2)는 「일본의 이른바 南韓經營論」이다. 神功皇后설화가 이제는 빛을 잃었다는것은 아까도 잠깐 건드렸지만, 4·5·6세기에 걸쳐 洛東江유역에 (처음에는 蟾津江유역까지도) 일본세력이 엄존했었다는 이른바 任那日本府說은 아직도 그殘炎이만만치 않은것으로 안다.

6년전만 해도 일본교과서는 거의 예외없이 『고대일본의 한반도 지배를…의심할 여지가 없는 사실로 구체화』 시켰고, 단 하나만이 『최근 조선학계에서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견해가 발표되었다고 『註記』를 붙인데 그쳤다한다. 근래 이 문제는 文獻史學에서 考古學에서 혹은 金石學에서 많은 反證이 나왔고 그런 결과가 일본교과서 개정에 반영될 公算이 크다는 보도도 있었다. 과연 그렇게 되었을까.

문제점(3)은 「三國문화와 日本古代문화」의 관계다. 6년전까지만해도 『韓半島로부터 문화와 기술이 傳來된것은 강조하고 있으나 그것이 韓民族의 문화요 기술임을 솔직하게 시인하고자 않는다』는 것이었으며 (그저 「大陸系」라고 얼버무리거나 中國문화가 한반도를 거쳐서 傳來했다거나 한는수가 많았다), 한반도나 중국대륙으로부터의 『이른바 歸化人의 공헌은 記述하고 있으나 그들의 활동으로 어떤 영향이 일본고대사에 미쳤는가에 대한 서술에 있어 매우 인색하다』는 것이었으며, 『따라서 飛鳥·白鳳등 일본고대문화의 전개와 성격을논함에 있어 三國문화의 관계가 배제되고 있다』는 것이었다.

몇해전 일본의 몇몇 도시에서 「한국미술 5천년展」이 열리고있던 무렵, 그 관계자 한분이 일시 귀국해서 報告講演을 한는것을 傾聽한일이 있다. 『이 古美術展에 대한 일본인의 反應은 대체로 세가지로보였다. 젊은 학도들은 일본고대문화의 源流가 한반도에 있었던것을 실물로 對해보고 驚異에 가득차 있는듯했다. 中年의 전문가들은 그 源流를 확인할수 있어서 학문적 수확이 컸다는 好意的인 실토였다. 그러나 老年의 전문가 가운데에는 「그것 누가 모르고 있었나. 큰 비용들여서 일본에서까지 그걸 보여주도록 할건 뭐람」하는 듯한 이도 있었다』고 했다. 이번 교과서에서는 이것이 어떻게 반영되었을까.

社會漫評

八面楚歌

地平線

미국을 여행하는 사람들이면 어디서나 흔히 볼수있는것이 신체장애자 「마크」다. 동그라미위에 사람이 앉아있는 形象이다. 이 「마크」가 뭣을 의미하는지를 모르고 있던 사람도 「휠 체어」(車椅子)에 앉아있는 장애자 표시라는 것을 금방 알게 된다. 미국에서는 아파트, 슈퍼마키트, 백화점, 학교등 어떠한 주차장에도 반드시 이 「마크」가 그려져 있다. 물론 입구에서 가장 가까운 제일 좋은 자리를 이 「마크」가 차지한다. 장애자들을 위한 전용주차장이라는 뜻이다.

▼군복무중 부상으로 하반신 마비장애자가 된 金錫在목사(40)가 우리나라 장애자로서는 첫운전면허를 땄다는보도다. 자동차文明에 일찌기 젖어들은 미국사람들에겐 좀 뒤늦은감을 자아낼지도 모른다. 하지만 우리들에게는 매우 반가운 소식이다. 신문(한국일보 5일자11면)에 실린 그의 그렇게 밝은표정이 우리들을 더욱 더 흐뭇하게 만든다. 金목사는 선진국의 경우 장애자의 「남아 있는 기능」을 살려주자는데 교육의 목적이 있고 사회의 관심이 있는데 비해, 우리사회는 장애자의 「없어진 기능」만을 문제삼는다고 말했다 한다.

▼장애자들을 보고 혹시 이맛살을 찌푸린적은 없는지, 政府·사회·우리들이 주변을 돌아보며 깊이 생각해봐야할 문제다. 미국의 장애자 지위향상에 획기적 역할을 한것은 73년의 「리허빌리테이션法」(再活法)이라고 한다. 이法에 의하면 연방정부와 계약관계에있는 기업, 단체는 장애자에대해 일체의 차별을 할수없을 뿐아니라 오히려 고용과 승진에 특별배려를 해야한다는것이다. 77년 그法 시행규칙에다 서명한 갈리파노 후생장관은 『이제야 새시대가 시작되고 미국시민생활에 근본변화가 일어날것』이라며 뜻을 붙였다.

▼워싱턴市內 보행도로는 車道보다 한계단높다. 그러나 좁든 넓든 보행도로 한쪽에는 車椅子가 지나갈수 있도록 계단턱을 깎아놨갠 경사로를 만들어 놓았다. 車椅子는 지하철의 홈까지 무난히 내려갈수있다. 시내버스중 車椅子를 그대로 실어태우는 특수승강장치를 한것을 간혹 볼수도 있었다. 어떤방법으로든 연방정부의 혜택을 받는 버스회사가 새로 버스를 마련할때는 장애자를 위한 특수승강장치를 구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東洋사회는 西洋보다 情義가 있는 사회라고들 한다. 그렇것이다. 하지만 장애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사회主流에로 統合·同化시키려는 시설과 노력에서는 西洋사회가 앞서 있는것같다. 金목사의 표정처럼 우리사회도 더 밝아졌으면—。

레이건, 이休戰준수 促求

【워싱턴4日AP·UPI=聯】 레이건 미대통령은 4일 팔레스타인 해방기구(PLO)에 대해 지체없이 베이루트를 떠날것을 촉구하는한편 이스라엘은 레바논위기가 평화적으로 해결될수있도록 다시 휴전을 실시, 이를 엄격히 준수해야한다고 선언했다.

이와함께 미관리들은 서베이루트에 새로운 공세를 펴고있는것으로 알려진 이스라엘에 대해 제재조치를 가할 가능성을 적극 검토하고있는것으로 알려졌다.

江青 종신收監될듯
홍콩百姓誌서 보도

【홍콩4日期=聯】 故毛澤東의 처이며 『4人幇』의 우두머리로 작년1월 특별재판에서 2년집행유예조건부 사형선고를 받은 江青은 처형되지않고 종신토록 형무소에수감될것이라고 홍콩의잡지「百姓」誌가 4일 중공당서기王任重의 말을 인용, 보도했다.

이 잡지는 王任重이 지난 6월에 열린 전국文藝지도자대회에서 江青을 처형하지않고 종신토록 수감한는것이黨의 기본방침임을 밝혔다고말했다.

533-2361

ARIRANG HOUSE
아리랑하우스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716 BLOOR ST. W.
(at CHRISTIE)
TORONTO, ONT.
☎ (416) 532-2727

KIMKOR
종합보험대리점
적 금
교육, 은퇴,
오기지 적금.
부 동 산

김 종 조
535-0028
535-7200

YOUNG SOOK'S
보석상

○각종보석
○다이아몬드
품질보장
○최저가격
○뉴디자인
○보석개조
교환매매
○보증서

215 Yonge St.
368-7961(B)
690-5217(R)

경 축

「대한민국 전두환 대통령의 캐나다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캐나다 한인총연합 대한부인회

교과서歪曲 몰고온 日本의 実相 <1>

日本教科書歪曲문제는 어떤 次元에서 나타난 것인가, 戰後37년이 지난 오늘의 日本國民의 意識은 어떻게 달라지고있는가, 또 그것이 韓日兩國현안문제에 어떻게 投影되고있는가, 궁금한문제는 하나 둘이 아니다. 本社는 이런 觀點에서 최근 4~5년간 日本慶應大신문연구소에서 연구를하는記者들에게 변해가는 「日本의 實相」을 파헤치도록 했다. 【編輯者註】

◇많은 日本人들은 戰前 「日本國의상징」 이었던 天皇에대한 忠誠을 지금도 맹세하고있다. 正月초하룻날 공개된 皇宮참배하러가는 東京都民들.

되살아난 「日本人」意識

"한국、日위에 못선다"妄想

「軍國망령」神社참배 부활·戰爭기념 모임도
"植民政策 한국에 利益"엉뚱한 주장까지

謝罪를 自己卑下로 착각

"加害者는 잊어도 被害者는 못잊어"

東京시내 한가운데 1백만㎡를넘는 방대한 면적을 가진 日本皇宮(皇居)이호수에 둘러싸여 있다。점심때쯤 이근처에가면 호수를 따라 잘 닦아 놓은길을 조깅族들이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땀을 뻘뻘 흘리며 뛰는 모습을 볼수있다。

皇宮주위를 한바퀴 도는 길은 그냥 걸어도 다리가 아플만큼 길다。검은 돌로 쌓아올린 축대위에 휜벽을 가진 아름다운 옛건물들이 푸른숲위로 솟아있는 皇宮은 東京을찾는 외국인들이 대개는 한번씩들르는 관광코스이기도하다。군국주의시절 이皇宮은 광신적헌신의 대상이 됐었으나 지금은 外賓이나 대사를 접견하는 역할에 머물고있다。이밖에 1년에 두번 천황탄생일과 정월초하루에 일반대중에게 문을연다。

지금은 별로 쓰이지 않는 皇宮 北桔橋門에서 전에 近衛사단이 있던 황량한 빈터를 지나 거대한 武道館을 끼고 한동안 걸으면 하늘을 떠 받들듯이 솟은 큰 도리이(鳥居)가 나타난다。이것이 일본 神道신앙의 중심지인 靖國神社의 입구다。2차대전당시 징병된 젊은이들이「出征」할때 이곳이 그 정신적 출발지점이었다。

鳥居의 옆에는 뉴기니아와 北部濠洲근처의 지도를 銅板에 새겨 넣은 화강암 기념비가 있고 그앞에는언제나 꽃이 놓여 있다。기념비에는「濠北方面戰歿者慰靈碑」라는 이름으로『南十字星아래 몸을 바친 친구가 걸은 길은 험난했다…』라는 문귀가 새겨져있다。「濠北方面」은 인도네시아로부터 뉴기니아를 거쳐 가달카날에 이르는 태평양전쟁때 日本군이 침략해 간 最南端지역이다。

여기서 자갈이 깔린 길을 따라 걸어 들어가면 넓은 뜰 한가운데 큰 동상이 서있다。일본 근대육군의 창설자인 大村益次郞의 동상이다。5년전쯤 司馬遼太郞이라는 작가가 쓴 그의 일대기가 NHK·TV연속극으로 방영됐었다。일본인에게는 軍神과같은 인물이다。

1894년이후 일본이 섬밖으로 군대를 내보내기 시작한후 전투에 참가한 병사들은 전장에서 죽으면 영혼은 이靖國神社에 돌아와 護國영령으로 살것이라고 믿었다。군국주의의 시절 이런 광신주의의 중심이된 곳이 바로 이곳이었고、미끼(三木)이후 스즈끼(鈴木)에 이르는 역대 일본수상의 神社참배행사는 소름끼치는 군국주의의 망령이 그대로 살아있음을 보여준다。

3월하순께 벚꽃이 만개할 무렵이면 이 靖國神社안에서는 野遊會가 벌어진다。그러나 벚나무밑에 끼리끼리 모여 앉아 술잔을 돌리고 있는 사람의 얘기를 엿들어 보면 이것이 밤벚꽃놀이가 아님을 알수있다。태평양전쟁시절 한 부대에 있던 옛 전우들이 모임을 만들어 해마다 전쟁을 기념하고 있는 것이다。

2차대전 종전직후 1억총참회의 흐름같을뻘던 모습을 기억하는 전쟁세대에게 오늘의 이런 분위기는 퍽이나 대조적으로 느껴질 것이다。

濠洲의 국제정치학자이며 언론인인 그레고리·클라크는「日本人」(The Japanese Tribe-Origins of a Nation's Uniqueness)이란는 그의 책에서『일본인은 상대방에게 중대한 해를 끼친 경우에도 사죄하려고 하지않을 때가있다。36년간에 걸친 잔인한 식민지배에 대해 일본은 한국에 사죄한 일이 없다。

사죄를 하면 그것이 일시적인 것이라하더라도 국제질서속에서 한국인을 일본인보다 높은위치에 놓는 결과가 되는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이것은 일본인에게 받아들일수없는 것으로 돼있다。이때문에 일본인가운데는 식민지배 시절 한국에 해를준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익을준것이니 사례를 받아야한다는 논리로 비약시킴으로써 문제를 처리하려는데까지 있다』고 말하고 있다。

한국인이 일본인의 우위에설수 없다는 발상은 福澤諭吉의「脫亞論」에서유래한다。일본이 근대 국가로 탈바꿈한 明治維新직후 慶應대학을 창설한 福澤은 서양인의 아시아 침략에서 일본이 살아남길은 아시아的 후진성을벗어나 일본만이라도 서둘러 西洋化하는 것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脫亞論은한국인이나중국인과같이 미개한 민족과 어울리다가는 일본이 망할것이라는 논리에서 출발하여 한국인은 미개한 민족이니 먼저 개화한 일본이 이를 가르쳐 일본을 중심으로 강력한 하나의 아시아를 만들어야 한다는「大東亞共榮論」으로발전했다。

그결과는 일본의 한국식민지배와 중국침략-태평양전쟁으로 나타났다。그러나 패전에도불구하고 脫亞주의는 일본인들의 의식속에 그대로 남아 현대 일본의 외교,경제,사회,문화면에 西歐지향 일변도의 추한 모습을 이어가고 있다。

그런속에서 福澤이 창설한 慶應大학도 일본의 사립 명문으로 발전하여 오늘 일본 보수·우익세력의 학문적 보루가 돼 있다。

한국이 일본의 식민지배를 통해 많은 것을 배웠으니 감사해야한다는 어거지는「久保田妄言」으로 나타났고, 한국인에 대한 일본인의 터무니없는 우월감은 이번 역사교과서 왜곡사건에 대한 한국측의 항의를「내정간섭」이라고한 松野 國土廳長官의발언에서 그 모습을 드러내고있다。松野는 閣議에서『당국은 무얼하고 있길래 남의나라 교과서를 가지고 고치라 말라 한는가, 어째서 이 지경이 됐는가』라고 사뭇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30년이 지난 이야기지만 久保田妄言은 그경위를 다시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판문점휴전협정이 이루어지기 직전인 1953년 1월 클라크유엔군사령관은 韓日국교정상화를 위해 당시 李承晩대통령을 東京으로 초청, 吉田茂 일본수상과의 정상회담을 주선했다。

그러나 그해10월 재산청구권분과위원회에서 한국이『일본이 한국에 남겨둔 재산을 청구할 권리를 주장한다면 우리도 36년간에 걸친 일본통치에대한 배상을 청구하겠다』고 한데대해 일본대표 久保田貫一郞이『만일 한국이 그런청구를 한다면 우리도 통치시대 植林、수리、항만,철도시설등 경제건설에의해 한국경제에 공헌한 사실들을 청구할수 있다』고 어처구니없는 反論을 제기함으로써 회담이 결렬됐었다。

그후 국교정상화는 1965년 韓日기본조약에 의해 이루어졌으나 久保田식 발상은 松野의 내정간섭발언처럼 일본인들의 의식속에 그대로 살아있다。그리고 일본 역사교과서는 史實을 왜곡하여 한국인에대한 일본인의 근거없는 민족적 우월성을 젊은세대에게 교육하고 …

【[illegible]기자】

메아리

不二

프랑스문화의 특징을 한마디로 말하라다면 不二美가 아닌가 싶다。

파리의 거리는 어디로가나 6,7층짜리건물들이 가지런히 늘어서서 얼른 보기에는 거기가 거기 같다。파리만큼 도심과 변두리의 격차가 없는 도시도 드물다。그러나 이렇게 한결 같아 보이는 건물들도 가까이서 유심히 바라보면 저마다 다르다。키부터 절대로 같지 않아 집집의 지붕이 약간씩 들쭉날쭉이다。문짝 하나도 이웃 건물과 다른 것은 물론,창문 바깥의 발코니 또한 쇠창살의 紋樣이 건물별로 하나도 같은 것이 없다。

파리의 지하철은 세계에서 가장 편리하기로 유명하다。파리시내에는 지하철역이 3백개 이상있다。이지하철을 타는데 조금만 길이들면 차가 역에들어설때 벽에쓰인 역이름을 읽지않아도 어느 역인지 단번에 알수있다。역마다 분위기가 다르다。역안의 구조는 물론이거니와 벽의 색깔이 제 각각이고 의자하나까지도 역따라 다 틀린다。

라·데팡스라면 파리교외에있는 신개발지역의 이름이다。시내에는 고층건물들을 제한하기 때문에 이 지역에 새 빌딩들이 들어서 있다。개선문쪽에서 이라·데팡스를 바라보면 그林立의 각양각색이 장관이다。사무실건물들에서 그렇다고하더라도 아파트건물들까지 모양과크기와 색깔이 하나도 같은 것이 없다。

프랑스는 실로 不二美의 나라다。세상에 2개 있는것은 아름다운것이 아니라는것이 프랑스 美學의 기본정신이 되어있다。

우리가 프랑스 문화를 찬양한다면 사실 이들의 不二美사상은 嘉賞할만하다。세상에 2개없는것、세상에 있는것과 같지 않은것을 만들어내겠다는 생각은 곧 새로운것을 창조하겠다는 생각이고 이것이 모든 예술 창작의 원동력이 된다。

그런데 프랑스의 不二美정신은 문화분야에서뿐 아니라 일반 생활구조와 심지어는 정치분야에 있어서까지 그들 사고방식의 기조가 되어있다。

프랑스를 흔히 개인주의의 나라라고 한다。이 개인주의야말로 不二美정신의 소산이라 할수있다。나는 남과 같지 않다는 생각、나같은 사람은 세상에 둘이 없다는 생각은 곧 不二美가 낳은 개인주의사상이다。이 개인주의가 국제정치무대에 등장할때 소위 獨自外交路線이 된다。

르네상스가 인간을 발견한이후 개인주의는 서양사상의 한 흐름이 되어오기는 했지만 사회적책임을 강조하는 현대에 와서는 개인주의가 비판을 당한다。파리에 머물러보면 프랑스 개인주의의 몰인정、무책임、비능률에 곤혹을 당하는때가 한두번이 아니다。不二美는 여기서 失色이된다。

金聖佑 <編輯委員>

클로드·제송 프랑스외상이 어제 한국에왔다。프랑스는 北傀승인이라는 소위「쭈뻥카드」를 추켜들고 경제협력에 있어서의 實利를 얻어 내려고한다。

南北韓교차승인은 한국문제에대한 서방세계의 통념이다。이 통념을 깨고 프랑스가 유독「남 안하는것」을 하겠다는것은 이것도 일종의「獨自外交」라할는지 모르지만 개인주의의 惡習이란 叱咤를 면치 못한다。不二美가 政治美學이 되면 프랑스는 醜해진다。

프랑스의작가 앙드레·모르와는「프랑스와 프랑스인」이란 책을 통해 프랑스의 개인주의가 公民精神의 결여를 가져온다고 일찌기 경고했다。프랑스가 北傀승인으로 세계의 질서를 어지럽히려는것은 국제사회에 있어서의 공민정신의 결여를 말한다。

세상에 2개 있는 것은 아름다운것이 아닐는지 모르지만 수천、수만이 한자리에 모이면 아름답다。밤하늘의 총총한 별、바닷가의 긴 모래사장、운동장의 매스·게임、이런 群集美가 不二美대신 國際政治의 美學이라야 한다。

自民黨·文部省·外務省 收拾싸고 混線

修正은 잘못自認 결과 文部省
어떤 形式이든 고쳐야 外務省
檢定제도 改正 움직임 野黨

【東京5日=宋孝彬특파원】한국과 중공으로부터 비판이 날로 격화되고있는 교과서歪曲검정문제는 자민당、외무성、문부성간에 수습을 둘러싸고 의견이 엇갈려 혼선을 빚고 있다。다음은 각부처간의 입장、의견을 종합한 것이다。

▲문부성=문부성은 4일에 이어 5일 자민당 문교관계위원들과 연석회의를 열고 검정교과서 재수정에 응한다는것은 日教組의 주장대로검정제도자체를 부정하는 결과를 낳게된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강경방침을 재확인 했다。

문부성은 10년전부터 중국대륙의 침략을 진출로 식민지통치를 합리화한 방향으로 검정을 해왔으며 이번에 한국과 중공의 강력한반대로 이를 재수정하면 이제까지 실시해온 검정제도와 방향이 잘못되었다고 스스로 自認하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우려했다。

문부성은 교육이 百年大計라는 큰테두리에서 추진되어야하고 검정제도가 이같은 기본입장에서 시행되어야 한다는 名分論을 강조、歪曲부분을 시정하려 하지않고있다。

문부성은 교과서 歪曲검정문제가 필자와 출판사 사이에서 자율적으로 이뤄졌다고 발뺌하면서 그책임을 민간에 돌려왔으나 5일 오가와(小川)문부상은 참의원 문교위에서『검정제도는 문부성의 책임아래 이뤄진것으로 재수정은 있을수없다』고 강경자세를 보였다。

▲외무성=나날이 심각해져가는 교과서歪曲문제는 문부성의 설명이나 일본정부의 설명만으로 해결될수없고 근본적으로 어떤 형식이든 歪曲부분을 수정해야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국제여론에 민감한 외무성은 일본이 이웃나라인 한국과 중공으로부터 강경한 비난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는 선진지도국가로 발돋움할수 없다는 점과 교과서문제가 韓日경제협력 및 9월하순 스즈끼수상의중공방문등 외교적 현안문제에 나쁜영향을 주지 않도록 배려하고 있다。한국과 중공의 對日국민감정의 뿌리가 깊고 넓어 교과서문제는 근본적대책에 손을 대지않으면 해결이 불가능하다고 수상실과문부성에 설명하고 있다。

4일 스노베(須之部)사무차관은 연일 對日비난캠페인을 벌이고있는 한국과 중공신문을 집무실에 쌓아놓고 사태를 분석하고 있으나 주무부처인 문부성의 강경론에는 어떤수도 저럴수도없는 딱한 입장이다。

외무성은 적어도 全斗煥대통령의 아프리카巡訪에 앞서 이문제를 해결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韓日 경제협력문제와 교과서문제와는 별개로 처리한다는입장을 밝히고있으나 실제로는 구별치 못할것이라는게 외무성측의 견해이다。

▲수상주변=스즈끼수상은 교과서歪曲검정문제가 이렇게 크게 비화될것이라고 예상하지 않은점도 있지만 될수있는대로 골치아픈문제가 수상에게까지 올라오지않고 밑에서 처리되기를 바랐다。

그래서 어디까지나 교과서歪曲문제는「문부성차원의문제」로 해결되기를 희망했지만 한국과 중공이 외교문제로 확산시킴으로써 수상자신이 이문제에대해 정치적 결단을 내릴수밖에없는 입장이 됐다。

스즈끼수상은 4일 외무·문교등 관계장관및 자민당간부와 연쇄회담을열고 이문제를 조속히 해결토록 지시하는 한편、정부와함께 자민당도 합심해서 타결에 협력해줄것을 요청했다。

스즈끼수상이 다른 문제와는달리 교과서 문제에 대해 자민당의 黨論통일을 요청한 이유는 문부성과 자민당 강경파의 의견을무시하고 교과서문제를 처리했을경우 이는 11월에있을 총재재선에 나쁜영향을 미칠우려가 있기때문이다。

스즈끼 수상으로서는 총재재선이란 정치적목표를 달성하기위해 무엇보다도 자민당강경파의 눈치를 보지않을수없다。

▲야당=사회당과공산당은 한국과 중공으로부터 제기된 교과서검정문제를 계기로 문부성이 장악하고있는 교과서검정제도자체를 개정하는 운동을 펼계획이다。

이번 교과서문제가 국제적외교문제로 비화된 책임을 물어 오가와 문부상의해임문제와함께 전국적인 교과서歪曲검정에대한 항의 집회를 추진하고있다。

사회당과 공산당의 歪曲부분 즉각수정 주장과는 달리 공명당과 민사당은 점진적수정론을 들고 나왔다。

공명당은 검정제도 자체에는 반대하지않고 있으며 검정에서 나타난 역사사실 歪曲부분을 수정해야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日국내 異論도 文部省에 화살

歷史에는 恥部도 있는법
정말反省하고있는지의문
修正하는 方法 남아있다

【東京5日=聯合】韓·中·日 3국간의 교과서 분쟁이 확대됨에 따라 일본국내에서도 양식있는 인사들은 文部省의 독선적이고 국제감각이 결여된 역사왜곡을 비판하는 소리가 갈수록 높아지고있다。

물론 일본신문의 독자난등에 일본교과서의 우경화를찬양하고 한국·중공의 비난을 내정간섭이라고 묵개하는 국수주의적 견해도 나타나고있지만 역시 문부성의 검정자세에 대한비판이 대세를이루고있다。

5日字주요신문등 日本국내비판여론의 일부는 다음과 같다。

▲아사히(朝日)사설=교과서문제와 관련、일본정부에 촉구하고 싶은것은 첫째도 둘째도 솔직함이다。

일본의 과거의 잘못、교과서검정자세의 잘못、국제적 시야가 좁았던데대한 잘못등을 시인하고 반성하는자세가 현재 일본정부에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우선 정부는 교과서에서「侵略」이라는 용어를 부활시킬 용의가 있음을 솔직이 표명하도록 촉구한다。

▲마이니찌(每日)신문사설=전쟁전 일본의 정당화라는 방향에서 교과서를 획일화하려했던 검정자세가 이번 문제를 야기시켰다。

문부성은 한국이나 중공이 요구하는 수정에 응할수 없다고 하지만 잘못의 정정이라는 방법이 남아있다。저자의 수정신청을 승인하기만 하면 된다。

▲도오꾜(東京)신문 사설=교과서문제의 본질은 과거의 잘못을미화하면서 전쟁전으로 복귀하려는 정부와자민당의 체질에서 비롯된다。

그동안 기회있을때마다 교과서검정을 둘러싼 문부상의 자세를 경고했으나 정부·자민당은 한번도 귀를 기울인적이 없다。

이번에 한국 중공의 항의를 받고 겸허하게 귀를 기울인다고 얘기하고있지만 정말 반성하고 있다는 이야기인지 의심스럽다。

▲우시로꾸·도라오(後宮虎郞)前駐韓대사=3·1독립운동을 기술하면서 폭도라고하는 용어를 사용하고 일본어사용과 神社참배가 강제는 아니었다고 쓰는 것은 객관성이없으며 상식을 벗어난 처사이다。어느나라에도 명예로운 역사가 있는가하면 치부도 있다。

그가운데서 밸런스를 맞춰 객관적인 교과서를 만드는일이야말로 두번다시 과오를되풀이 하지않는 첩경이다。

▲오오누마·야스아끼(大沼保昭·東京大 조교수)=文部省검정의 역사왜곡에 대한 비판이 우방인 한국·중국에서 가장 심각할뿐 아니라 미국·북한·동남아제국등 각각 정치체제가 다른 나라들로확산되고 있다는 사실은 이번 문제에 관한한 일본측이 정치적 합리성을 결여하고 있음을 여실히 증명한다。

특히 한국의 교과서에도 잘못이있다고 주장한 일부각료의 발언은 떼장이의 억지라고밖에 볼수없다。

식민지로서 지배당한 사람들의 아픔을 조금도 이해하지못하는 이같은 자세가 강력한 반발에 부딪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이각료는 韓日합방당시 한국의 국내정세를 생각할 때 어느쪽이 옳았는지 모른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당시 한국이 아무리 말기증상에 허덕이고 있었다고는 하지만 한반도에 사는 대다수 한국민의 의사에 반해 식민지화한 사실을 어떻게 옳다고 얘기할수 있는가。우리들은 스스로 과거의 잘못을 자손들에게 그대로 전하고 그 잘못으로부터 교훈을 얻도록 어린 세대에게 가르쳐야한다。

▲다니가와·가즈오(谷川和穗·자민당의원·前문교정무차관)=이번 교과서마찰을 계기로 자신의 척도만 갖고 외국을 봐서는 안된다。피해를 당한 나라와 국민의 기분을 加害者가 멋대로 판단해서는 안된다는것을 절실히 느꼈다。절대로 반성하지않는한 일본은 아시아로부터 고립되고 말것이다。

▲와따나베·마나부(渡邊學)무사시(武藏)大교수=역사교육에 관한한 한국을전체적인 시점에서 취급하지않는 일본측의 자세가 돼먹지않았다。예를 들어 일본교과서들은 야요이문화는 중국문화가 한국을경유해서 일본에 전래된것이라고 가르치고 있으나 한국측으로볼때는『그러면 한국은 우편배달부냐。중국으로부터 야요이 문화가 전래된 것은 확실하지만 한민족은 한민족대로 그것을완전히 소화한후 일본에 가르쳐 주었다』고 반발한다。바로 그대로이며 하나하나의 단어보다도 문화민족으로서의 한국을 구체적으로 취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週刊「요미우리」=검정에 대해 강경일변도인 최근의 문부성자세를놓고볼때 침략을 진출로 고쳤다고 해서 특별히 놀랄것도 없다。

문부성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침략을 진출로 고치도록 요구했을것이고 교과서회사와 저자는 순순하게 응했을 뿐이다。

문부성은 이같은 왜곡이 아시아국가들로부터 이처럼 큰반격을 받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못했다。

그러나 이번사태는 가해자의 안이함이 피해자가 받은 상처의 깊이를 과소평가한당연한 결과라고 말할수밖에없다。

海外토픽

◇질서정연伊바캉스隊列 하계휴양지로 떠나려는 차량 수천대가 3일 이곳고속도로의 입구를 빠져나가기위해 열을지어 차례를 기다리고있다。【밀라노3日UPI聯=聯合】

美소녀 日섹스쇼에
★FBI、日범죄조직수사

미연방수사국(FBI)은 오리건주 포틀랜드출신의 10대 소녀10여명을 일본에 보내 이른바 라이브·섹스쇼에 출연케한것으로 알려진 범죄조직망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고。

오리건·저널지는 4일 지난해 최소한 6명의 포틀랜드출신 소녀들이 일본으로건너갔으며 지난 겨울 현재 최고12명의 소녀들이 라이브·섹스쇼에 출연했다가 수명이추방되었다고 보도。

이신문보도에 따르면 FBI는 일본에 팔려간 소녀들의 가족과 친구들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우선 국립교도소에서 보석으로 풀려난후 행방을 감추고 불법인신매매행위를 하고있는 것으로 알려진 전과범 로저·브루크스(36)를 용의선상에 올려놓고 있다는것。【포틀랜드(美오리건州)=UP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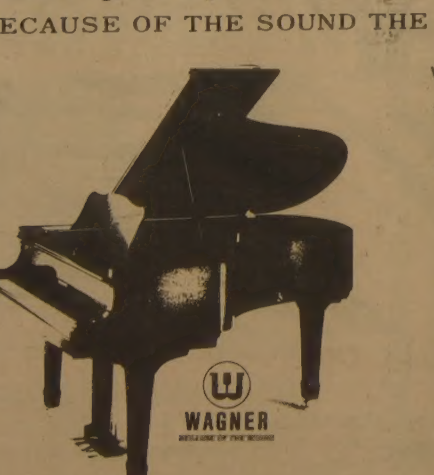
이라크軍 26만殺傷 이란 2년戰果발표

이란은 31일 약2년간 계속되는 이라크와의 전쟁에서 '9만명의 이라크병사들을 죽이고 17만명을 부상시켰다고 밝혔으며 이라크는 최근 18일간의 전투에서만 2만7천2백55명의 이란軍을 사살했다고 발표했다。

모센·레자에이 이란회교혁명수비대사령관은 이날 이란의 관영IRNA통신과의 회견에서 이라크軍의 사상자수뿐 이같이 밝히고 개전이래 5만명의 이라크병사들이 포로로 잡혔다고 덧붙였다。

한국일보

Everybody's talking about WAGNER..
BECAUSE OF THE SOUND THE QUALITY AND THE VALUE



WAGNER PIANO는

* 품질의 높음이 세계적으로 알려져 구라파와 미국은 물론 카나다에서 수많은 음악전문가들의 호평을 받고 있으며
* 카나다의 최우수 대학인 몬트리올의 McGill University 음악대학, University of Alberta 음악대학, Humber College 음악과 등에는 이미 Wagner Piano를 다량 애용중이며,
* 상당수의 U of T음악교수들, 카나디안음악인들, 토론토한인음악인들이 Wagner Piano를 소유하고 있읍니다.
* Wagner Grand Piano는 카나다 전체 Grand Piano 판매량의3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해마다 증가일로에 있읍니다.
* Wagner Piano는 12년간 본사에서 품질을 보증합니다.
* Clear and Precise Sound, Uncompromised Quality and Unbelievable Price는 Wagner의 자랑입니다.

WAGNER HOUSE OF MUSIC
JASTOM TRADING COMPANY LIMITED
101 DUNCAN MILL RD. SUITE G-5 DON MILLS, ONTARIO M3B 1Z3
☎ (B) 445-1516, 449-8644 (H) 286-1548 대표 박 성 희

블루어안경

◆ Zeiss(Marwite)
◆ Christian Dior
◆ Menrad
◆ 안경제조 · 수리 · 복사처방
◆ 안과의사알선 (No Appointment)
◆ Blue Cross, Metropolitan Life Vision Care지정 안경점.
◆ 정부 보조 안경지정 영업소
◆ Stock렌즈는 당일 서비스합니다.

※ 주2회 안과의사가 직접 내방하여 검진하오니 이 시간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수요일 : 오후1시부터~4시30분까지
토요일 : 오후1시부터 4시30분까지

◈영업시간 : 월~목 9 : 30AM~7PM
금~ 9 : 30AM~8PM
토~ 9 : 30AM~6PM

635 BLOOR ST. W
☎ : 531-2236(B) 886-0722(R)

"총칼보다 무서운 歷史파괴"

文公委 질의·답변

國会錄音

질문: 日각료妄言 사과받았나 / 國內 日殘滓없앨 對策은

답변: 內政간섭云云 神經안써 / 帝國냄새풍겨 是正가능

▲辛相佑의원(民韓) 질의 ‖정부가 강력히 日本에 시정을 촉구했는데 정부가 생각하는 시정의 시한은 언제인가. 점차적인 시정이란 있을수없다. 어떤 형태로든 민간차원의 해결책모색은 日本의 태도가 또 변할수있기때문에 응해서는 안된다. 일본의 태도로보아 시정을 하더라도 中共과 한국에대해 差等是正을할 가능성을 배제할수없으며 일본이 이에대한 양해를 구할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하겠는가. 또 우리정부가 양보할수있는 한계는 어디까지인가. 韓日우호관계에 금이가서는 안된다는 우리정부의 뜻을 잘알고있지만 善隣유지란는 막연한 선에서 처리해서는 안된다. 따라서 經協때문에 양보해서는 안되며 經協과 이문제는 分離해야한다.

만약 일본이 經協을 전제로 타협을 할경우 이에대한 장관의 소신은. 일본각료가 內政간섭 운운하는데 우리는 우리의 주장이 있어야한다.

해명과 정식사과를 요구할용의는. 우리가 우리역사를 지킬때 남이 엿보지 못한다. 앞으로 민족교육의 허점을 낱낱이 찾아 보완해야한다.

▲姜槙燮의원(국민) ‖외국에서 우리역사를 왜곡했을때 그시정책임은 어느부서에 있는가. 어떤 경로와 방식을 통해 시정조치를 한는가. 대표적 실례를 들어달라. 일본이 왜곡한다는 사실을 언제, 어떻게 알았는가. 또 어떤기관이 언제 어떠한 시정조치를 요구했는지 날짜별로 내용을 밝혀라.

정부는 우리의 독립운동을 부정하고 韓民族에 정면도전하는듯한 왜곡사실은 그들이 무엇을 노리고 있는것으로 분석하고 있는지 밝혀라. 일본각료의 妄言에 대해 정식으로 해명을 요구하고 사과를 받은일이 있는가. 만약 일본이 시정요구에 불응할때 정부가 취할 확고하고 강력한 대응조치는 무엇인가. 몇년뒤 일본이 세계3위의 군사大國으로 성장되면 우리도 對日관계에 있어 새로운 자세정립이 필요한데 정부의 생각은. 또 앞으로 왜곡사실을 세계에 널리알려 다시는 왜곡을 할수없도록 사전예방조치를 취할용의는.

▲崔昌圭의원(民正) ‖일본은 전쟁이 끝났기때문에 한국에서 물러간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으며 이것이 잘못된 역사의 실체다. 光復이후 일본의 文部省이 공개적으로 왜곡을 시도한것은 일본정부의 공식적도전으로 본다.

이도전은 눈에 보이지않는 古代史에 관한것이아니라 우리의 생존과 직결되는 부분이기때문에 직접적인 영향과 위협을 주는것이다. 따라서 총칼의 침략보다 더 무서운 일본의 역사파괴를 경계해야한다. 韓日의 관계는 일본이 物理的강국으로 우리가 文化大國으로 형평을 유지할때 형평을 유지해왔다. 또 일본의 物理的힘이 강해 질때는 갈등과 파란을 빚었지만 우리의 文化가 강해지면 항상 평화관계를 유지해 왔다. 역사의 왜곡은 우리민족사의 침략과 파괴이며 이에대한 경계경보가 울려야한는데 정부나 학계나 아무도 이런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金吉俊의원(議政) ‖역사교과서는 근본적인 인식의 표현으로 이것이 잘못되면 심각한 갈등을 내포하게된다. 정부는 책임지고 왜곡을 시정하라. 국민은 왜곡이 시정되지 않으면 經協의 타결도 바라지 않기때문에 經協과 교과서是正을 분리해야한다. 일본文部省이 왜곡에 직접 나선것은 일본정부의 방침을 뜻하기때문에 민간차원의 해결모색은 문제의 핵심을 흐릴우려가 있다. 그래서 共同硏究委의 설치는 필요가 없다고본다. 우리정부가 강경備忘錄을 일본에 전달한것은 잘한일이나 늦은감이있다. 앞으로 일관성있는 대응조치를 취하도록 하라.

▲李奎浩문교부장관답변 ‖문제된 일본교과서는 오는83년부터 사용되는것으로서 올 9월초부터 인쇄에 들어가게된다. 따라서 歪曲부분에 대한 시정이 가능한 시간은 올 8월말까지이다.

일본교과서의 왜곡은 일본교과서의 내용이 帝國주의에 대한 향수를 풍기는 내용인만큼 그들도 내용을 시정할것으로 판단한다.

韓日양국의 우호적인 관계로 미루어 일본측이 교과서 시정에 한국과 中共에 차등을 두리라고 생각치는 않는다.

일본의 일부 각료가 內政간섭 云云했는데, 이는 국제상호관계가 밀접해지고 있는 시점에 역행되는 얘기라고본다.

더구나 외국에 대한 침략을 지적하는 내용이 內政이 될 수는 없다.

교과서문제는 獨·佛·美 등에서도 외교분쟁을 일으키고 있는 일로서 내정간섭云云 발언에 전혀 신경을 필요가 없다고 본다.

문교부는 문제의 교과서는 지난해 검정기간도중에 외무부를 통해 입수, 분석중이었는데 그동안 검정이 끝나지 않아 구체적인행동을 취하지 않았을 뿐이다.

일본측의 검열은 지난6월 30일 끝났다. 우리는 과거에 구애됨이 없이 모든 나라와 우호적인 관계를 증진시키려는 개방적인 국가이다.

우리가 교과서문제를 중시하는것은 교과서가 어린이들에게 세계를 보는 先入觀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특히 역사교과서는 다음세대에 대해서 살아가는 규범을 가르치는 것이기 때문에 중시하는 것이다.

앞으로의 평화와 韓日양국의 선린관계란는 측면에서, 일본은 신뢰회복이란는 측면에서도 왜곡된 부분은 시정을 해야하며 그렇게 하리라고 믿고있다.

▲李寧熙(民正) ‖韓國觀시정사업추진위를 당초 총리실산하에 두었다가 문교부로 옮겼고 이것을 韓國觀是正추진협회 이름으로 한국정신문화연구원에 이관했다 다시 문공부산하로 옮겼는데 이기구가 이리저리 옮겨다닌 이유는. 그간 이작업을위해 책정돼온 예산을 年度別로 밝히고 어떤나라의 교과서를 어떻게 고쳤는지 밝혀라. 국교3학년 국어교과서에 들어있던 柳寬順烈士에 관한 단원을 새 교과서에서 빼버린 이유는. 일본의 국제교육정보센터로부터 요청이 있었는가. 「어린여학생 유관순의 순국」이 「유관순의 처형」으로 바뀐 이유는. 국사편찬위가 앞으로 추진할 사업내용과 국사定立의 방향및 이에 해는.

대한 문교당국의 복안은 무엇인가. 앞으로의 對日교육의 방향과 내용은 어떠한가.

문교당국은 사회교육의 일환으로 어머니들에 대한 민족사교육을 실시할 의향은 없는가.

▲林在正의원(民韓) ‖우리의 요구가 묵살되었을경우 駐韓일본대사관의 철수, 일본상사들의 추방등 일련의단계적인 강경대응책이 마땅하다고 보는데 정부 당국의 견해는 어떤가.

정부는 국제적인 파문을야기시킨 일본교과서의 왜곡史實을 언제부터 알고 있었는가.

일본의 근성이 간접적으로 노출되고있는 시점에서 국내의 일본잔재세력과 그들의폐습을 배제할 대책은없는가.

현중앙청건물을 이땅에서 완전히 자취를 감추게한든지 독립기념관으로 개조 사용할 용의는.

세계각국의 교과서를 비롯한 간행물을 분석·검토하기 위한 전담기구의 설치 용의는.

각급학교의 현행 국사교과서의 전면적 개편을 서둘러야할 필요성이 있지 않는가.

민족주체성 확립을 위한민족교육의 강화대책을 구체적으로 밝혀달라.

▲金泰烈의원(民韓) ‖당초 우리정부가 미온적인 태도를 취한 이유는 무엇인가. 對日강경자세를 촉구하면서 교과서문제를 계기로한 對日관계의 작금의 현실과 장래의 전망에대해 밝혀라.

韓日실무협의체 구성은 일본의 지연책과 미봉책에 불과한데 이에대한 정부의 견해는.

해외동포 교육과정에서 특히 강조되어야할 國史교육이 초·중·고 학생교육과정에서 소홀히 되는 日帝식민통치에 대한 교육이 거의 이뤄지지 않고있다는데 이에대한 사실여부와 앞으로의 대책은.

▲李潤子의원(民正) ‖일본의 교과서왜곡은 3·1운동을 부정하는등 한국에 대한 가치관의 전도와 편협한 對韓우월감의 소치에 있다. 따라서 국사편찬위와 같은 기구를 통한 韓·日관계사의 정리및 한국의 近代史를 재정립할 용의는. 일본등을 포함한 세계각국의 교과서를 연구검토하는 상설기구의 설치 용의는. 일본의 경제, 군사 및 교육등의 통합적연구를하는「日本연구소」와 같은 기구를 상설운영할 용의는.

▲李大淳의원(民正) ‖韓日양국의 우호증진과 일본을 위해 일본교과서의 개편과검정과정에 나타난 일본의 저의는 무엇인가. 검정과정에서 수정된점은 일본文部省에 책임이있다고 보지않는가. 주요국가간의 교과서개선사업과 韓日간에는 이것이 잘이뤄지지 않는이유는. 단계적으로 내년도 교과서의 내용을 시정하고 정기적으로는종합적인 시정을추진해야한다.

우리의 日本史연구는 어디까지 와있는가. 太平洋연안국가의 역사, 지리, 사회과 교과서 개선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용의는. 民族史觀을 정립하기위해 國史교육을 전면 재검토할 용의는.

▲朴在旭의원(국민) ‖이번문제에대해 분노와 경악에 앞서 일말의 自責感을느끼지 않을수없다. 일본인들의 속셈과 그들 정부의 저의를 좀더 일찌기 파악하여 간교한 계획을 효과적으로 좌절시킬수있는 노력을 국회의원으로서 하지못했기 때문이다.

자유당정권때李承晩대통령의 排日정책이 좀 지나쳤다고 생각했던것이 지금의 사태앞에서는 그심정을 십분이해할것 같다.

이번사태에 관한한 한치의 양해나 후퇴가 절대로 있어서는 안될것이다.

강력한 대응책을 마련해야한다.

이번 역사歪曲에 대한 일본學界의 인식은 어떠한것이며 일본의 야당과 주요신문들이 일제히 日本정부태도를 공격하고 있는데 이런 論調에 대해 우리정부는 어떻게 분석하고 있는가.

▲沈相宇의원(民正) ‖우리의 교과서 내용과 국내 일부 史學者의 사상이 아직도 植民史觀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는것은 亡國指向的이다. 교과서 내용을 개편할 용의는.

光州학생독립운동기념일은 일본의 잔학성과 獨立主體性을 심어주는 훌륭한 교과서인데 이날을「학생의날」로 부활시킬 용의는 없는가.

일본교과서 내용이 시정될때까지 일본상품의 不買운동과 일본관광객의 入國거부운동을 전개할 용의는.

우리 韓民族의 문화와 가치관은 家門과 조국의 명예를 제일 중요시하는 선비사상에 바탕을 두고 있다.

韓日合邦당시에도 많은 선비들이 自決로써 명예를 지켰는데 관계장관은 만일 이 사태가 시정되지 않는다면自決할 용의는 없는가.

▲康源采의원(民韓) ‖일본은 교과서외에 문학작품, 학예술작품등에도 편견과 歪曲을 일삼고 있는것 아닌가.

외국 교과서에 실린 잘못된 한국관계를 시정하기위한 대책은.

「韓國觀시정사업추진위」가 실효있는 활동을 할수 있게하는 대책은 무엇인가.

國交斷絶까지도 不辭하겠다는 강한 외교지령을 가지고 간접침략이라고 할수있는 역사의 歪曲 말살행위를 바로잡아야한다.

▲李義永의원(民韓) ‖일본교육의 二重性을 경계하기 위해 대응조치로 抗日투쟁사 교육을 더욱 강화하고 항일투쟁기념일 행사를 거국적으로 거행할 용의는 없는가.

또 抗日烈士들의 傳記발간사업을 추진하고 항일투쟁사를 편찬하라.

전문가로구성된 대규모 일본교과서 왜곡시정촉구단을 파견, 왜곡시정노력을 기울일 용의는 없는가.

일본 東京에서 식민통치의 잔학상을 폭로하는 필름을방영할 용의는 없는가.

일본으로 하여금 西獨의나치전시관과같이 식민통치 전시관을 세우도록 촉구하고그렇게 되지 않으면 駐日대사관에 이를 설립토록할 용의는.

▲李문교답변 ‖외국출판물의 잘못된 한국관 시정은 문교부차원으로서는 어렵기 때문에 「韓國觀 시정협의회」를 협력기구로 만들기 위해 소관부처가 자주 옮기게 됐다. 현재로서는 협력이 잘되고있다. 「한국관시정협의회」는 그동안 레바논 교과서에 잘못 기술되어 있는 金日成에의한 한국의 해방과 6·25는 南韓이 도발했다는 등을 전면 삭제하는 활동을 벌였다.

올바른 국사관의 확립을위해 정신교육을 강화하고 국사편찬위가 다른 학자들과 공동연구토록 권장하겠다.

인접국가들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적절히 전달하는 것이 중요한 교과과정으로 보고 우리는 일본의 역사를 그들에 인식시키도록 하겠다.

역사교과서의 왜곡사태에 대한 중대성을 깊이 인식했기때문에 대책에 신중을 기했고 이것이 우유부단했다는 인식을 준게 사실이나 우리가 항의하기전에 일본이 시정할 것이라는 생각도 일부 있었다는 것을 시인한다.

各國「팔」人 레바논集結

對이抗戰대열에 참여위해

시리아등서 1만5천명 自願

【슈타우라(레바논) 4日UPI=聯合】지난 67년 중동전당시 세계각지의 유태인들이 전투에 참가하기위해 조국으로몰려들었던것과 마찬가지로 이번 이스라엘과 싸우고있는 팔레스타인해방기구(PLO)전사들을 도와 對이스라엘항전대열에 참여하기 위해 각지의 팔레스타인들이 레바논으로 몰려들고 있다고 PLO관계자들이 밝혔다.

이들 관계자들은 수로 시리아를 비롯한 수개지역으로부터 이미 약1만5천명의 자원자들이 레바논에 입국했다고 말했다.

한편 PLO강경파는 이스라엘과 싸우기위해 레바논에 입국한 팔레스타인자원자수가 2만명을 넘고있다고 주장했다.

이들 지원자들의 대다수는 학생들이며 모두 자발적으로 자비를 들여 레바논에 왔다고 말하고 있다.

한 청년학도인 사미르(20)는 이스라엘이 지난6월6일 레바논을 침공한뒤 불가리아의 소피아로부터 다른 학우들과 함께 이곳에왔다고말했다. 한편시리아로부터입국, 베카계곡에서 이스라엘군의 봉쇄망에 막혀 발이 묶여있는 다수의 자원자들은 이스라엘 진지 후방에서『치고달아나기』작전을 벌일 기회를 노리고 있는것으로전해졌다.

◇PLO 게릴라를 이잡듯이 이스라엘 군인들이 4일 베이루트郊外 엘·오우자이지역에서 집집마다 뒤지며 팔레스타인해방기구(PLO) 게릴라들과 싸우고있다.【베이루트AP電送=聯合】

이란終戰조건일부 수락용의

사우디駐在 이라크大使밝혀

【니코시아(키프로스) 5日AP=聯合】사담·후세인 이라크대통령은 이란측이 이라크에 제시한 종전 조건중 일부를 받아들일 용의가 있는것으로 4일 밝혀졌다.

다라지대사의 이같은 발언은 전쟁피해 보상금조로 1천5백억달러를 지불하라는 이란의 對이라크요구를『어리석은 것』이라고 일축한 이라크 정부대변인의 3일 발언과 크게 대조를 이루고 있다.

583·2361

제14기「名人戰」1차예선

9일~21일 參加자격 초단부터 3단까지

5명을 선발

○…제14기 名人戰 1차예선이 9일부터 21일까지열린다. 초단에서 3단까지 참가하는 1차예선에서는 5명을 선발하며 이들 5명과 4·5단이 2차예선을 벌이게된다. 여기서 선발된5명과 6단이상이 3차예선을벌여 최종적으로 3명을 선발한다. 이3명은 前期(제13기) 본선시드에 잔류해있는 徐奉洙7단, 張秀英6단, 姜勳4단, 河燦錫7단등 4명과합류, 7명이 총리그를 벌인다. 현재의 名人位는 曺薰鉉 9단이 보유하고있다.

◇曺薰鉉

◇金寅

金寅8단 지난날 영광되찾기에 渾身의힘

徐奉洙7단과 同率

○…60년대의 한국바둑계를 석권했던 金寅8단이 최근 지난날의 영광을 되찾기위해 혼신의 힘을 기울이고 있다.

그는 제7기 棋王戰도전자리그에서 호조를 보여 徐奉洙7단과 동률인 4승1패를 기록, 오는 18일 최종국(제21국)에서 徐7단과 도전권을 두고 일전을 벌인다. 金8단은 白成豪5단에게 1패를 기록했고 徐奉洙7단은 金熙中6단에게 1패를 기록했다.

徐7단은 최근 曺薰鉉名人에게 王位戰타이틀을빼앗겨 롱일천하를 허용한것이 심리적부담이 되어 金8단으로서는 도전권을 따낼수있는 좋은 찬스라고 기사들은 말하고있다.

金8단은 재작년 最强者戰에서 도전권을 따냈으나 도전전에서 타이틀보유자인 曺薰鉉名人에게 2대1로 패했다. 그는 7월23일 제1기 MBC帝王戰 제19국에서도 沈宗植5단에게 집흑으로 2백7수만에 불계승을 거두었다.

外大 전국大學 霸王戰서 단체·個人석권

작년우승자는 탈락

○…7월26일부터 29일까지 4일간 한국기원대회장에서 열린제2회 전국大學바둑霸王戰에서 外國語大가 단체전과 개인전을 석권했다.

단체전23개교 36개팀, 개인전 1백54명이참가한 이번 대회에서 外國語大A팀은 작년에 이어 또다시 우승, 2連霸를 이루었고 B팀은 준우승을 차지했다. 개인전에서는 우승후보로 지목되던 지난해 우승자 趙炳卓군(慶北大)과 朴倫緖군(外大)이 모두 준결승전에서 탈락하고 다크호스인 崔俊군(外大)이 우승, 대학바둑수준의 평준화를 실감케했다.

입상자는 다음과 같다.

◇단체전 우승 外國語大A팀, 준우승 外國語大 B팀, 3위 亞洲工大A팀, 4위 成大A팀 ◇개인전 우승 崔俊(外大) 준우승 朴相南(外大) 3위 趙炳卓(慶北大) 4위 朴倫緖(外大)

馬山의 鶴初杯 전국아마戰 7~8일 열려

한국일보詩壇

道中에서

韓英玉

피는 꽃과 지는 꽃이
한 벼랑에서
버티고 있다

마음에 담아야할 건
둘중의 한 아픔,

피는 꽃을 더 가여워 했던
뜨겁고 헤픈 눈물은
다행히 잦아 있었다

벼랑을 타고 올라
지는 꽃을 우악스레 훑어오는
터지고 부어 오른 손,

이만큼 질긴 손길
딴 가슴에 놓았으면
놓인 자리마다 꽃피었을까

그러나 빠듯하게 남은 햇살,
꽃이 지는 배경을 끊고
가던 길을 마저 가야 한다

멀리, 곧게 달음질치자
뒤돌아 보면…
막 피어나는 한 송이에게
뒷덜미를 잡힐 것이다.

海外연예

미네오죽음다룬「누가」出刊

○…「10대의 반항」「자이언트」「삼천분인 영광」에서 앳된 모습으로 팬들을 사로잡았던 살·미네오의 죽음을 미스터리터치로 다룬 소설「누가 살·미네오를 죽였는가」가 수전·브로디에 의해 출간됐다.

미네오는 66년2월 웨스트 할리우드의 자택주차장에서 한 괴한의 칼에 찔려 37세로 숨졌는데 범인은 후에「유명인을 살해하고 싶었을 뿐」이라고 말해 그가 허무한 죽음을 당했음이 밝혀졌었다.

작가 브로디는 13세때 필라델피아에서「이유 없는 반항」에 나온 미네오를 본 이후 그의 이국적인 미모에 매료당했는데 그의 죽음이 알려지자 3년간의 조사끝에 책을 내놓게 된것.

미네오는 나이가 들면서 제작자및 감독의 미움을 사「냉혈」「아메리카 아메리카」등의 중요한 역을 모두 남에게 빼앗긴 불행한 스타였다. 그의 첫째사랑이보이였던 연인은「이유 없는 반항」서 공연한 제임즈·딘이었다고.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으로 찬양 받는 카트린·드뇌브(39)가 최신작「기아」의 촬영을 마쳤다. 영국의 신인감독 토니·스카트가 연출하고 데이비드·보위와 수전·새런돈이 공연하는 이 작품에서 드뇌브는 연인을 찾아 헤매는 나이가 2천살이나 되는 반인간, 반외계인으로 출연한다.

두아이의 어머니이면서 아직도 아름다움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드뇌브는 자신의 미에 대해 못생긴 것보다 나을뿐이라며『연기자가 아름다울땐 그 미에 상응하는 좋은 연기를 보여줘야한다』고 강조.

드뇌브는 아직도 전남편이자 연인들인 로제·바딤, 마르첼로·마스트로얀니, 사진작가 데이비드·베일리와 만나며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데『사랑은 여인이 겪을 수 있는 가장 훌륭한 경험』이라면서『자신의 과거에 대해 수치도 후회도 없다』고 담담히 말한다.

○…브리지트·바르도, 카트린·드뇌브, 제인·폰더등과 염문을 뿌렸던 세계의 바람둥이 프랑스의 영화감독 로제·바딤이 오랜 로스앤젤레스생활에서 벗어나 프랑스에서 다시 작품활동을 시작했다. 그가 제작중인 영화는 50년대 프랑스의 한 작은 마을을 배경으로 10대들이 펼치는 얘기인「젊은 처녀들의 날」.

바딤은 최근 자서전「굶주린 천사」를 프랑스에서 출판, 베스트셀러가 되고 있는데 이 책에는 그와 친분이 두터웠던 장·콕토, 에디트·피아프등이 나오지만 그의 과거 여인들에 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바딤은 또「젊은 처녀들의 날」의 제작을 마치면 영어판「이마누엘도」를 만들 예정이라고.

○…패트·분의 딸 데비·분(25)이 주연하는 뮤지컬「7인의 신부」가 브로드웨이 무대에서 개막, 4일만에 흥행에 참패, 막을 내렸다. 제작자들은 자그마치 1백25만달러.

「7인의 신부」는 브로드웨이 데뷔전 1년동안 LA를 비롯 미전국에서 공연됐었으나 역시 재미를 못 봤다.

○…MGM/UA엔터테인먼트의 자회사인 유나이티드 아티스트사(UA)의 데이비드·베글먼사장이 사장자리에서 밀려났다.

해임 이유는 그가 지난해 3월 UA사장직에 오른이래 만든 영화들이 대부분 흥행에 큰 실패를 했기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할리우드에선 베글먼의 해임이 사실은 그의 공금유용전력을 까뒤집어 놓은 책「불상사나운 폭로」의 출간때문인 것으로 소문이 파다하다. 베글먼은 5년전 콜럼비아영화사 사장재직시 회사공금 6만여달러를 착복, 유죄판결을 받은 적이있다. 이 사건으로 콜럼비아사를 떠났던 그는 지난80년MGM사장으로 고용됐고 이어 81년 MGM이 UA를 사들이면서 UA사장자리에 올랐었다.

○…커크·더글러스가 NBC·TV제작의 영화「사람의기억」에 출연한다. 이스라엘에서 곧 촬영에 들어갈 이작품은 나치의 유태인 수용소에서 살아남은자들의 예루살렘 해후를 그린것으로 더글러스는 대학살에서 살아남아 2차대전전 사랑을 나눴던 여인을 다시만나는 역을 맡는다.

【LA支社=朴興津기자】

◇카트린·드뇌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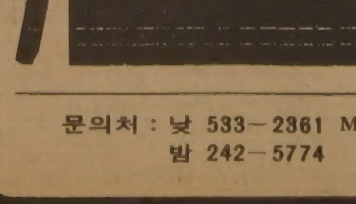
◇로제·바딤

◇살·미네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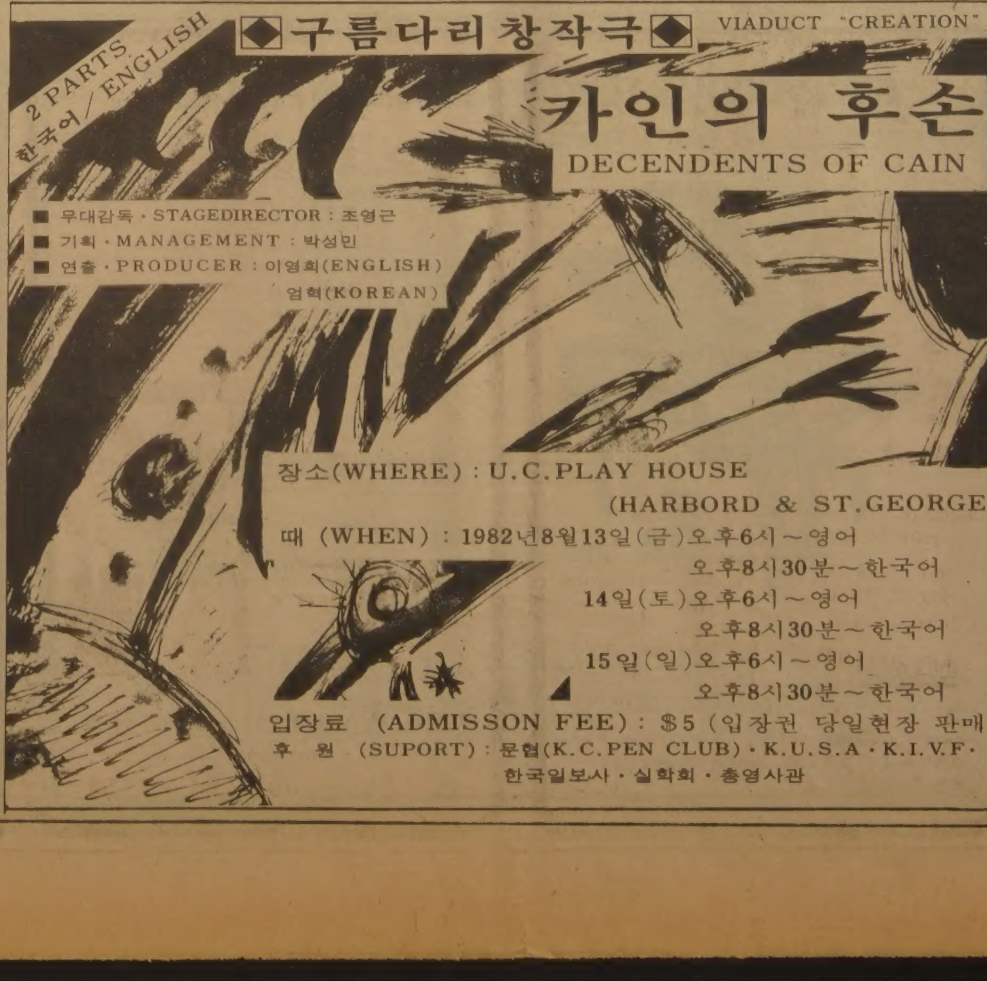
WORLD BOOK— CHILDCRAFT OF CANADA

아직도 WORLD BOOK을 구입 못하셨읍니까? WORLD BOOK은 북미에서 가장 많이 읽히고있는백과사전의 하나이며 유치원부터 대학까지의 과정에 꼭 필요한 책입니다.

★29,000이상의 사진,그림,지도및 차트포함
★어린이를 위한 SPECIAL VOLUME "CHILD CRAFT"



문의처 : 낮 533-2361 Mrs. 김
밤 242-5774



털코-트 원하십니까?

Paul Magder FURS

※밍크외 각종 털제품 3000점이상을 준비하고 있읍니다.
※한국말을 하는 점원이 여러분을 도와 드립니다.
※ 스파다이나 208번지에는 지점이 있읍니다.
※언제나 저렴한 가격으로 여러분을 모시고 있읍니다.

신품 $150부터
중고 $99부터

※ 보험 세탁 스토레이지(차게 보관), 수리 추레이드인(Trade-ins)
※ 밍크외 각종 털코-트, 자켓 모자 칼라 스톨 남성모피

<영업시간>
12:00~5:00 일요일
9:00~6:00 월,화,수,토
9:00~9:00 목,금

202+208 SPADINA AVE.
☎ : 363-6077 Mrs. 전

해묵은 恐怖…農藥禍

洪城선 올들어 47명 中毒死

農事짓다 죽어가서야

농약사용에 대한 지도·계몽및 안전장비의 부족과 사용기피, 용기에붙은 설명서가 쉽게 떨어져 농약중독사고가 날이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경기도高陽郡에서=기사의 특정사실과관련없음】

用途표지 쉬떨어져 誤用·눈짐작 撒布
裝備·계몽부족… 除草劑뿌려 망치기도
전국곳곳 入院사태 醫療陣도 모자라
민물고기도 中毒…백로떼등 떼죽음도

농번기중 농약중독사고가 크게 늘어나 그대책이 시급하다. 최근 장마가지난뒤 벼논에 도열병등 각종 병충해가 번짐에따라 농약살포작업이 한창인데 장비착용등 안전수칙을 제대로 지키지않거나 장비부족으로 인명피해가 늘어나고 있다. 또 농약용기에 붙은 상표및 용도표시가 물이 묻으면 쉽게 떨어지는 바람에 쓰다남은 농약의 용도구분이 어렵고 분제농약안에 양을측정할수 있는 용기가 들어 있지않아 일부 농가에서 손쉽게 병충해를 구제하기 위해 농약을 기준치보다 2배이상 독하게 사용, 더많은 약해를 유발하고 있다.

농민들은 농약사용에 관해 당국이나 농약공업협회의 지도나 계몽이 미흡하고 예방책이 소홀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충남 洪城의경우 올들어 7월말 현재 47건이 발생, 47명이 숨져 지난해 같은기간의 18건보다 무려 29건이 늘어났고 농약중독사고도 75건이 발생, 5일 현재 10명이 입원치료를 받고있다. 더우기 洪城郡 金馬 洪東 葛山 龜項등 4개면에는 65년 보건지소가 신설된뒤 17년이 지나도록 의사가 배치된일이 없을정도로 농촌지역에 의료진이없어 치료를 받기가 어려운실정이다.

경남 馬山을 비롯한 咸安·義昌지방의 경우에도 지난 7월중순이후 온몸에 힘이 빠지고 어지러우며 식욕이 없는등 가벼운 농약중독 증세로 병원, 약국을 찾는사람이 늘어나고 있다. 馬山시내 5개 종합병원에도 올들어 80~1백명의 중독환자가 입원치료를 받았는데 이중 4명이 숨졌다. 金海市 농촌지도소에 따르면 일부농민들이 벼멸구등 병충해를 구제하면서 1천배로 희석, 사용토록 돼있는 유제 4홉들 농약을 5백배이하로 섞어 뿌리다 중독사고를 일으키는가하면 이농약이 강으로 흘러들어가 민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하고 이고기를 잡아먹은 백조등 철새들이죽는 등 부작용도생기고있다는것.

한편 농민들은 시중에서팔고있는 2백여종류의 농약가운데 제초제만이 병자체에 제초제라고 새겨져있을뿐 나머지는 종이에 인쇄해 용기에 붙여 놓았기때문에 물이 묻으면 상표가떨어져나가 용도는 물론 농약이름도 알수없어 쓰다남은 농약을 버리거나 잘못사용, 농사를버리거나 중독사고를 빚는다고주장했다.

농민朴英씨(40·경기始興郡 蘇萊邑 新川里)는 지난해7월 제초제를 살충제로잘못사용해 논3백평을 망쳤는데 올해도 부실한 농약용기가 나돌고 있다고 한탄했다.

경북蔚珍郡 溫井面 仙邱1里에사는 金모씨(47)는 액체농약은 대부분 병에 cc단위로 눈금이 표시돼 있어 양을 측정할수 있으나 분제농약은 사용설명서에 「그램(g)당 물 몇리터(ℓ)를부어서 사용하라」는 식으로 표시돼있을뿐 포장지안에 양을잴수있는 용기가들어있지않아 눈대중으로 짐작해 사용하기때문에 중독사고를 빚는경우가허다하다고 농약공업협회를 원망했다.

강원鐵原郡 東松面 黃모씨(40)는『농촌에서 농약사용량이 증가하고있으나 당국이나 농약공업협회등의 농민들에대한 농약취급교육이 빈약해 피해문제가 심각해지고 저수지에서는 등이굽고 지느러미가 못쓰게된 물고기마저 잡히고있다』고 걱정했다.

관계자들은 농약을 독하게 사용한다고 병충이 구제되는 것은아닌데 농민들이 독하게 사용하면서도 방제복을 비롯 방독안경·마스크·장갑등 안전방제장비를 착용하지않고 농약중독을 촉진시키는 술을 마시거나 담배를피우면서 일하기때문에 중독사고가 더빈발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밖에도 안전장비가 농촌지방에 제대로 보급되지않았고 당국의 지도나 계몽도 시급한실정임이 지적되고있다. 중독사고를 막기위해서는 농약을 살포할때▲반드시 마스크등 안전장비를 착용하고▲10분간 작업후 5분간휴식을 취하며▲술·담배를 금하고▲살포후에는 목욕을 하며▲섭씨28도이상 무더운 한낮에는 작업을 피해야한다고 관계자들은 당부했다. 【盧基昌기자】

무인신문판매대 불루어에 설치

○음식점 한국관앞
○40¢ 넣으면 신문통 문이 열립니다.
○식품점서와 같이 당일발행된 신문을 사실수 있음.

토론토 한국일보

말썽난 市民獻樹金… 멋대로 執行

永登浦區廳長등 징계

특정造景업자와 隨意계약

서울 永登浦구청이 시민헌수성금으로 汝矣島지역에 식수작업을 벌이면서 회계법상의 규정을어기고 수의계약을 통해 특정업자에게 공사를맡긴사실이 5일 밝혀졌다.

서울시가 지난7월 15일부터 1주일동안 산하17개 구청을 대상으로 벌인 식수내역 감사결과에 의하면 永登浦구청은 지난3월중순 汝矣島조경녹화사업에 대한 공개경쟁입찰을했으나 응찰자가 없어 유찰되자 지난5월13일 국내굴지의 조경업체인 효자원과 수의계약을 맺어 5억3천만원의 1·2차 조경공사를 하게 했으나 유찰됐을경우 다시 공개입찰을 붙이도록 돼있는 회계법규정을 어겼다는것.

서울시는 이에따라 永登浦구청장과 재무국장을 징계할것을 검토중이다.

이에대해 永登浦구청은 식수적기인 3월중에 사업을 끝내야 했다」면서『유찰된뒤 다시 입찰을 붙여 응찰자 12명중 효자원에 낙찰된것』이라고 해명했다.

수도녹화 3개년사업의 첫해인 올해 서울시는 35억여원의 헌수성금을 받아 지난봄 시민식수를 포함 7백16만여그루를 심었는데 헌수성금 모금과정에서 일부구청에서 강제로 헌금을 시키는 사례가 있어 말썽을 빚기도 했다.

寺刹매입명목 詐取 40代住持구속

【釜山】부산 東萊서는 4일 사찰매입을 내세워 신도로부터 2천만원을 사취한 東萊區溫泉1洞443 원일정사의 주지 권평남씨(41)를 사기혐의로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권씨는 지난3월13일 원일정사 주지내실에서 신도 강옥순씨(51·여·西區土城洞3街18)에게 釜山鎭區 東平洞소재 선암사의 신축중인 사찰건물 1동을 2억5천만원에 매입하는데 2천만원이 모자란다고 속여 이를사취한혐의다. 【聯】

體力검사 願書접수 21일까지 교육청서

【光州】83학년도 고교및 대학입학고사 내신을위한 체력검사 원서교부및 접수가 5일부터 오는 21일까지 예정으로 각市郡 교육청별로 시작됐다. 【部】

매월 영세민들위해 法律무료相談 운영

【釜山】釜山변호사회는 5일 영세민의 법률보호를위해 전국 변호사회에서는 처음으로 釜山경남지역을 대상으로한 정기적인 이동법률상담반을설치, 운영키로 했다.

釜山변호사회 법률구조및 인권옹호위원회가 주관하고 李仁秀변호사를 비롯한 1백20명의 전회원이 참여하는 이동법률상담반은 앞으로 매월제1, 제3토요일 상오10시부터 하오3시까지 釜山 慶南지역의 구·면단위에 변호사3명과 사무원 2명씩을각각 배치, 무료법률상담활동을 벌이게된다. 【聯】

5行뉴스

◆祖國순례 大行進 발대

【金泉·裡里】전국61개대학 1천7백50명이 참가하는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주최 제9회 조국순례대행진 제4도정 2백30명은 5일상오8시 경북金陵郡代項面 직지국민학교운동장에서 발대식을 갖고 상오10시 金陵을 출발, 10일간의 행진에 들어갔다.

◆트럭에 住民3명 死傷

【店村】4일밤 10시30분께 경북 聞慶郡 山陽面 存道里앞 국도상에서 경북화물소속 경북8아2544호 8톤트럭(운전사 임광일·29)이 운전부주의로 도로변에 앉아있던 이마을 강신욱씨(62)와 김인효씨(38)를 치어 그자리에서 숨지게하고 김용규씨(66)에 중상을 입혔다. 【聯】

구독신청 배달사고 533-2801

日糾彈대회 전국에 擴散

"성난波濤" 大田선 5천여명궐기

大邱·仁川등 6개市 老人會서도 是正촉구

【지방종합】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과 일부각료의 망언을 규탄하는 궐기대회가 전국으로 확산, 5일大田서 설우동장에서 충남도민궐기대회가 열린것을 비롯 大邱 金泉 浦項 南原 裡里 仁川지에서도 각각 규탄대회가 열렸다.

▲이날상오 10시 大田공설운동장 유림회의사 동상앞에서 열린 충남도민궐기대회에서 대한노인회및 광복회유도회 회원과시민등 5천여명은 일본 교과서의 왜곡및 각료망언을 규탄하고 일본정부의 즉각 시정을 촉구했다.

▲전북 南原市노인회 회원 5백여명은 이날 상오 10시 동충동구 남원시청앞 광장에서 일본교과서 왜곡을 규탄하는 궐기대회를 가졌다.

▲대한노인회裡里지부 (지부장 황호석)도 이날상오11시 이리역 광장에서 일본교과서 왜곡및 각료망언을 규탄하는 궐기대회를 갖고 일본정부의 각성을 촉구했다.

▲대한노인회 大邱市연합회를 비롯 金泉·浦項지부등도 이날상오 11시 일본역사교과서왜곡에 따른 규탄대회를 일제히 열었다.

▲대한노인회仁川市연합회 회원 7백여명도 이날상오 11시 노인복지회관에서 일본의 역사왜곡규탄대회를 갖고『일본은 한국역사왜곡사실을 즉각 시정하라』고 촉구했다. 【綜】

〈大田공설운동장에서 열린 일본교과서 시정촉구 충남도민궐기대회. 대한노인회회원등 5천여명이 참석했다. 【大田=聯】

釜山日領事館에 돌·糞尿투척 企圖

【釜山】5일 새벽 0시5분께 부산 東區 草梁3洞 상금상호 신용금고 영업부 직원 진정흥씨(28·南區 大淵洞1 42)가 일본의 역사왜곡행위에 격분, 주먹만한 돌멩이 1개와 10ℓ들이 플래스틱통에 분뇨를넣어 일본영사관 서쪽 담벼에서 영사관건물을 향해 투척하려다 삼복경비중이던 경찰에 적발, 미수에 그쳤다.

스즈끼에 歪曲是正요구書翰 海外희생동포 위령事業會서

해외희생동포위령사업회(회장 李龍澤의원)는 5일 日本역사교과서의 對韓관계 歪曲부분을 是正할것을 요구하는 서한을 일본의 스즈끼(鈴木善幸)수상과 오가와(小川平二)文部相에게 보냈다.

이서한은『일본 文部省의 모검정관이 1944년 이전에 일본이 끌어간 한국인을 일본國籍이고 강제징용·징병이 아니라는 망언을 한것을 시정하라』고 요구하고『일본帝國이 한국땅과 主權을 총칼로 빼앗은후 36년동안 탄압 수탈등 모든 잔학상을 歪曲 美化해서까지 일본의 2세들을 가르쳐 韓日양국의 장래에 불행을 자초하려는 일본정부의 저의가 어디에있는지 알고자 한다』고 말했다.

國史교육, 民族史에 바탕

國際교과서 센터도 設置

왜곡 對日시정對策 文敎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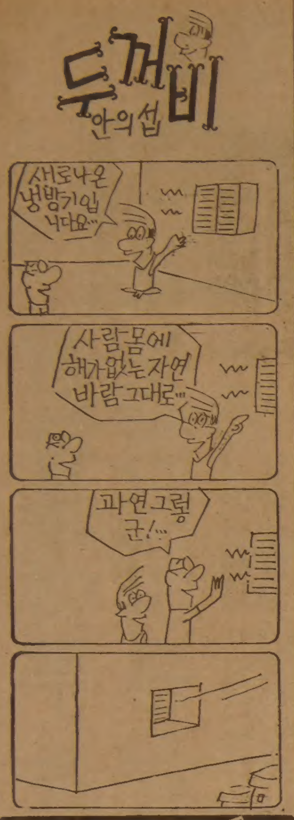
문교부는 5일 일본교과서 왜곡파문을 계기로 국내적으로 민족사관에 입각한 국사교육을 강화하고 국제교과서 센터를 설치, 일본의 對韓國觀시정사업을 펼쳐 나가기로 했다.

문교부는 이번 일본교과서의 한국관계왜곡이 일본의식민사관에 대한 미련과 日文部성교과서조사관의 행정권한확대등 일본교과서 검정정책의 강화에서 연유된것으로 분석, 이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해 이같은 대책을세웠다.

문교부의 대일대책에 따르면 우선 일본의 對韓편견에 대한 근본적인 대응책으로국내교과서의 세계사중 日本史교육내용을 크게보강하고 교원연수및 각종 사회교육과정에 국사교육을 강화, 학교교육에서 민족사관에입각한 국사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문교부는 또 앞으로 일본역사교과서의 한국관계 왜곡자료를 한국관시정추진협의회를 통해 일본측에 제시, 시정을 계속 요구할 방침이다.

문교부는 이밖에 세계 각국의 교과서를 수집, 비교분석할 전담기구인 국제교과서센터를 교육개발원에 부설하고 韓日관계사부분의 연구지원을 늘이기로 했다.



결혼예물 보석및시계
미도파
다이아몬드, 반지
목거리, 팔지, 목거리
B536-1692
H245-3539

脫法 보험患者많다

他人카드使用에 3개월 施惠정지

보사부는 5일 의료보험카드를 남에게 빌려주거나 무자격자를 피부양자로가장,보험진료를 받게하면 부당이득금 반환과함께 3개월간 의료보험혜택을 정지토록 하는등 부정수진자의 유형별 처리기준을 마련, 전국 각의료보험조합에 시달했다.

보사부의 이같은조치는 의료보험부정수진이 해마다크게 늘어나 보험재정이 악화되는것을 막기위해취해진것.

이기준에 따르면 자격을상실한 피부양자가 보험진료를받거나 서류를 허위로 작성 수치를 조작한 경우 분만급여와 장례비를 이중으로 받을때는 이로인한 부당이득금은 환수되고 보험진료혜택도 2~3개월 정지된다는 것.

의료보험의 부정수진은 최근 급격히 늘어 공무원및 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공단의 경우 79~80년2년간 1천3백63건에 급여액이 3천5백51만여원이던것이 81년에는 2배가넘는 5천3백20건(8천1백28만여원)이적발됐다.

三星電子 홍콩支社 支社長 變屍로발견 살던 아파트서

【홍콩4일=聯合】三星電子홍콩지사장 李埈完씨(41·지리학자 金燦三씨사위)가 지난 3일아침 홍콩의 파오마 이성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에서 시체로 발견됐다.

홍콩경찰은 침대에서 발견된 李씨의 사체는 코에 피흔적이 있을뿐 신체의 어떤부분에도 상처가 전혀 없고 창문도 닫혀있어 李씨가 약물과다복용으로 사망한 것으로 일단 추정하고 있으며 4일 검시에 들어갔다.

三星電子의 싱가포르지사장을 역임한 李씨는 두달전 가족은 고국에 두고 혼자 부임해 왔고 지난7월12일에는 인도에서 칼라TV입찰에 나서 2만5천대의 TV수상기 판매계약을 마친후 지난25일 홍콩으로 귀임하여 설사를 하는등 탈진상태에 빠져 출근도 못했다고 三星電子홍콩지사 직원들이 말했다.

矜持

在日同胞 鄭羊淑씨의 편지

"나는 日本땅의 떳떳한 한국人"

의사인 남편을따라 日本에 와서 산지 9년이 되는 사람입니다. 한국계연예인중 홀로 本名인한국이름으로 활약하여 기노구니야賞까지 수상한 연극배우 李禮仙씨(7월16일자본란)를 同族으로서 퍽 자랑스럽고 마음 든든하게 생각해 이편지를 씁니다.

저는 평범한 주부이지만 그동안 기회있을때마다 일본인부인들에게 한국을 소개하고 우리의 문화와 풍습을 말해주고 때로는 과거 침략을 일삼던 일본제국주의자들에대한 만행을 설명해 줍니다.

그러면 부인들은『우리 日本人이 나쁜짓을 그렇게까지 했느냐』며 놀라와하고『그렇게 못된 짓을 많이 하였으니 우리가 패전하지 않을수 있었겠느냐. 부끄러운 일이다』며 솔직이 놀라고 부끄러워 하는 반응을 보이곤 합니다.

저는 이곳에 와서 꽃꽂이를 배웠읍니다. 처음에는 제가 한국이름을 쓰니까 멸시하는 태도였으나 6년동안 끈기있게 배워 나가자 日本꽃꽂이계에서 한국인으로는 처음으로(在日동포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음) 제게 금년4월 龍生派華道교수자격증을 주었읍니다.

저는 교수 수여식때 한복을 입고 참석해 뜻밖에 대인기를 얻었읍니다. 약 2백여명이 일본옷으로 정장하고 모인 자리에서 혼자 한복을 입는다는데 용기가 필요한 듯 느꼈으나「한국인이 한복 입는 것이 무엇이 부끄러우냐」는 결론을 얻어 당당히 입고 나갔던 것입니다.

그들은 모두「아름답다」고 탄성을 지르기도 했고 사진을 함께 찍자고 야단이었다. 축하연회때는 독창요청을 받아「아리랑」을 불렀는데 거기있던 日本인이 즉석반주를 해주어 인상적이었읍니다.

그이후 저는 기회가 있을때마다 꼭 한국노래를 부르고 또 누구를만나든 먼저 한국인 임을 떳떳이 밝힙니다. 그러면 그들은 전혀 몰랐다고 당황해 하기도 하지만 오히려 따뜻한 눈길을 보내는 것 같았읍니다. 긍지를 가졌을때 깔보지 못하는 것이겠지요.

일본의 교과서 왜곡사실을 규탄하는 고국의 신문을 보면서 지금 한국인에게 가장필요한 것은「한국인」으로서의 긍지를 갖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鄭羊淑·사진·日本千葉縣 富津市千種新田734의1】

江戶 太鼓寿司
어제 오신 분이 또 오십니다
쓰시(김밥) 전문
일본음식중 김밥만 전문으로 하고 있읍니다.
밤 12시까지 OPEN하오니 일차 왕림해 주십시오.
4 BAY ST. YONGE BLOOR ISABELLA WELLESLEY
TAIKO SUSHI
607A YONGE ST.
☎: 921-64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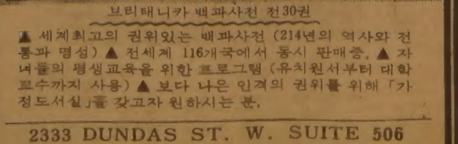
종합보험

김 홍 량
●생명보험
●자동차보험
●주택, 상점보험
●사업보험
●R. R. S. P.
●INCOME AVERAGING ANNUITY
●PENSION
FINANCIAL & INSURANCE CONSULTANT
961-3774(B)
277-8733(B)
624-2103(R)
IMPERIAL LIFE
The Imperial Life Assurance Company of Canada
Suite507, 586 Eglinton Av. E.
Tor. Ont. M4P 1P2
●CAPITAL GAIN, 높은 소득으로 인한 높은 세금의 조절및 경감방안
●기업계승에 따른 문제처리
●생활안정금고

Cooper Furs
밍크특별여름세일
밍크(모든 쉐이드), 비버-여우-라쿤-코요트-페르시안 양털을 이윤 없이 판매함.
비 정상적 가격 40% 할인

40년 전통, 수리, 재 재단, 세탁포함.
일요일은 예약자에 한해 영업함.
1978 Weston Rd. 정성주
(Lawrence 1블록 북쪽)
☎: 241-8091, 241-3952

YOUR KEY TO THE FUTURE
†자녀들을 위한성공의 열쇠†
ENCYCLOPAEDIA BRITANICA

NEW ENCYCLOPAEDIA BRITANICA

브리태니카 백과사전 전30권
▲세계최고의 권위있는 백과사전 (214년의 역사와 전통과 명성) ▲전세계 116개국에서 동시 판매중. ▲자녀들의 평생교육을 위한 프로그램 (유치원서부터 대학교수까지 사용) ▲보다 나은 인격의 권위를 위해「가정도서실」를 갖고자 원하시는 분.
2333 DUNDAS ST. W. SUITE 506
TORONTO, ONT. M6R 3A6 송 명
☎ (416)461-3363 · 463-7423 B)

「逆轉의 名手」가 「逆轉없는 名手」로

群商、邱商에 설욕기회 안줘

8-1… 7회 콜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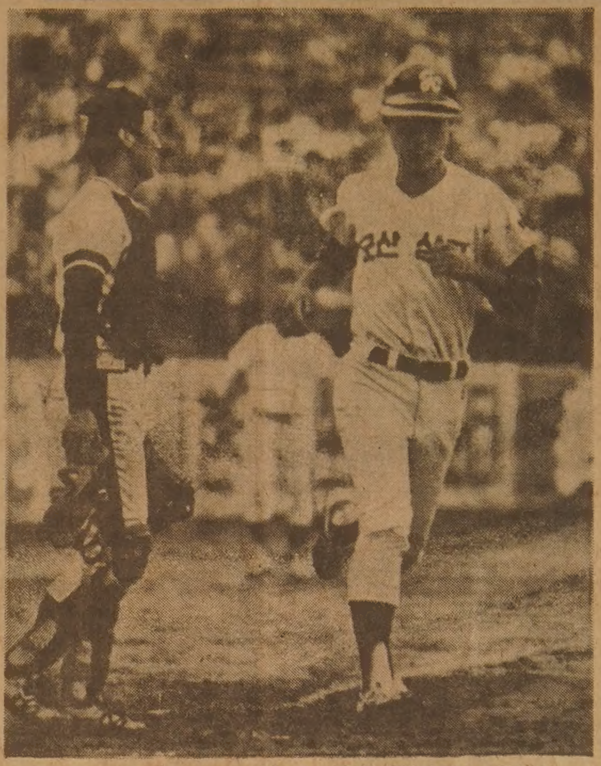
趙啓顯역투 초반부터 리드잡아 群商

先制點허용 끝내 만회못해 苦盃 邱商

제12회 봉황대기고교야구 <5일째>

봉황대기를 향한 群山商高의 힘찬행군이 시작됐다. 금년 청룡기 우승팀인 群山商高는 5일 서울운동장에서 벌어진 제12회 봉황대기쟁탈 전국고교야구대회 5일째 1회전경기서 2년생 에이스 趙啓顯이 역투, 2회초 큰 고비를 넘기고 포수 張虎翼이 선제타점을 비롯해 3타점 수훈을세워 호적수 大邱商에 8-1, 7회 콜드게임승을 거두었다. 群山商은 고교4대회중 유일하게 봉황대회서만 4강에도 오르지 못했었다.

지난해 팀을 부활, 봉황대회에 처음 출전한 東萊高는 좌완 李元中의 역투로 8회대회 우승팀 서울商에 6-1로 대승했다. 釜山商高도 왼손잡이 李弦澤의 역투와 소나기 12안타로 春川商에 10-0, 5회 콜드게임승을 거두었다. 봉황대회는 6일 1회전 22게임을 마치고 2회전에 들어간다.



◇得意와 失望과 群山商공격 5회말 1死후 2루주자 韓京洙(右)가 4번 吳錫煥의 우전적시타로 홈인, 4점째를 올리고있다。大邱商포수 鄭昌和(左)가 넋잃은 표정을 짓고있다。

작년 팀復活 東萊、強豪서울 大破 6-1

오늘 1회전 모두 끝내고 2회전1게임

東萊高—서울高

8회대회 우승팀 서울商이 팀부활 2년째의 東萊高에 힘없이 무너졌다. 17개팀이 출전선수를 나누어가지는 서울고교 야구의 현실이다. 안타수도 8-14로 열세.

1회초 2死후 3루타 2회초 1死후 단타로 단발 공격에 그쳤던 東萊는 3회초부터 서울 마운드에 연타를 퍼부어 완승을 거두었다. 3회초 1死후 1번 金七星이 우월 2루타, 2번 安智鉉이 포볼로 1、2루 찬스를만들자 3번 金正奎가 중전 적시타를날려 선제점을 올렸다. 4회초에는 5번 金成根이 우중월 3루타를 때리고 6번 方俊鎬가 중전적시타로뒤를 받쳐 2점째를 기록.

서울 수비진은 동요의 빛을 감추지 못했다. 東萊는 5회초 선두 1번 金七星이 투구에 맞아 1루로 나가자 2번 安智鉉·3번 金正奎가 연거푸 번트로 서울수비진을 기습, 연속내야안타를 성공시키고 이어 4번 朴鍾顯이 좌전적시타를 터뜨려 3-0으로 승세를 굳혔다. 金成根은 7회초2死후 안타와 적실로나간 2·3루주자를 두고 우월2타점 결정타를 날렸다.

서울은 東萊 좌완 李元中의 호투에 짓눌리다가 8회말 4번 金豊錄의 좌월2루타로 1득점, 영패를 면했다. 6회말에는 연속3안타를 때리고도 내야안타를 틈타 2루주자가 홈으로 뛰어들어 태그아웃당했다.

群山商—大邱商

群山商은 이제 역전의명수가 아니다. 가늘가늘 거리다가 9회말 기적적으로 회생하던 群山商신화도 옛말. 지난해부터 다시 고교야구정상권을 넘나들기 시작한 群山商은 봉황대기 1회전서 맞선 전통의 명문 大邱商을 초반부터 맹타, 선제 리드를 잡고 게임을 주도했다. 大邱商은 청룡기 1회전서도 群山商에 2-0으로 패배한후 와신상담, 설욕을 노렸으나 초반에 당한 다운을 만회하지 못했다.

群山商은 1회말 선두1번 高長亮이 좌월2루타를 때리고 보내기번트로 3루에 진출, 2死후 포볼과 데드볼로 만루를 이룬후 6번 張虎翼의 우전적시타와 大邱商 우익수의 수비실책으로 선제2점을 올렸다.

大邱商도 2회초 선두5번 楊永廉이 우전안타에이어 2盜·6번 成重根과 7번 鄭昌和가 포볼과 번트·안타로 차례로진루, 無死만루의황금찬스를 맞았다. 大邱商 朴富根감독은 역전을 노리며 8번 崔辰永에게 안타를 기대했으나 삼진으로 물러나고 9번 全相根의 좌전안타로 1점만회에 그쳤다.

大邱商의 추격에 위협을당한 群山商 白基成 감독은 3회말 선두2번 韓京洙가 다시 우월2루타로 찬스를 만들자 번트와 안타를 리드미컬하게 연결, 1점을 보태 2점의 리드를 지켰다.

3번 白仁浩가 보내기번트를 잡은 大邱商 투수 崔辰永의 실책으로 살아 無死1·3루를 이루자 4번吳錫煥이 좌전 적시타로 타점을 올렸다. 5회말에도 4번 韓京洙가 좌전안타로 나가 보내기번트로 2루에 진출, 4번吳錫煥의 우전 적시타로 홈을 밟아 승세를 굳혔다.

◇제5일1회전

동래고	001	110	201	6
서울고	000	000	010	1

▲동래투수=李元中 포수=金正奎 ▲서울투수=金聖珍(1·5회) 金喆中(4회) 포수=高丁植 洪尙郁(8회) ▲안타=동래14-8서울

대구상	010	000	0	1
군산상	201	010	4	8

<7회 콜드게임> ▲대구상투수=崔辰永 포수=鄭昌和 ▲군산상투수=李東錫 趙啓顯(2회) 포수=張虎翼 ▲안타=대구상9-11군산상

◇제3일 1회전(4일)

부산상고	022	60	10
춘천고	000	00	0

<5회콜드게임> ▲부산상투수=李弦澤 포수=丁海德 ▲춘천투수=韓鳳奎 池亨鍾(4회) 포수=崔準智 ▲안타=부산상12-1춘천

보성고	010	030	000	4
강릉고	000	000	311	5

▲보성투수=申昇鉉(1·8회) 朴秀鉉(6회) 포수=金鎭漢 ▲강릉투수=李東原·金雨征(5회) 포수=朴承鎬 ▲안타=보성5-9강릉

스포츠短信

대표선수2백14명속리산訓鍊

◆…아시안게임에 대비, 泰陵선수촌에서 강훈중인 국가대표선수 2백14명(13개종목)은 9일부터 10일간 속리산에서 휴식을겸한 전지훈련을 갖는다.

"選手기량·觀衆매너 훨씬 좋아졌다"

봉황야구證人… 서울運 현장감독 都重煥씨

◇都重煥씨

『71년 봉황대기가 생기면서부터 고교야구붐이 크게 일기 시작했죠. 새벽5시만 되면 극성팬들이 몰려와 매표구의 문을 두드려댔을 정도였으니까요』

71년부터 일을 시작한 운동장 현장감독 都重煥씨(47)는 봉황대회와 나이를 함께한 봉황야구증인이다. 팬들에게는 낯익은 얼굴. 그는『수표원으로 일하던 3회 대회때의 위조 초대권사건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회상한다. 매표구에서 표를 받다가 가짜 초대권을 발견, 끈질긴 추적끝에 삼계동에서 범인을 잡아 그때부터「수사관」이란 별명 까지 얻었다는것.

都감독은 그동안 선수들의 기량못지않게 관중들의 매너도 눈에 띄게 좋아졌다고 말한다.『몇년전만해도 조그만 시비만 나도 병을 던지고 일부 팬들은 운동장에 나오면 술을먹어야 하는것으로 알았죠. 특히 경기가 끝나면 쓰레기가 트럭으로 7대씩나와 밤새 청소를하곤했으나 이제는 4~5대로 줄었어요』고 말한다.

변한것은 또 있다. 70년대 초반만해도 ×××서 왔다며 어깨에 힘주는 사람들이 많았으나 이제는 입장권없이 끼어드는 사람도 많이 줄었다는것.

都씨는 가족들이 모두 야구를 좋아한다. 봉황대기를 잘 만해와 운동장서 함께 즐기고 가는 모습을 보는 것이 가장 흐뭇하다고 했다. 【崔英根기자】

亞洲청소년축구

한국、말聯에 6-0大勝

對싱가포르戰이 고비

【싱가포르=千一平특파원】 한국 청소년 축구대표팀이 말레이지아에 6-0으로 대승했다. 한국은 4일 싱가포르 국립경기장에서 거행된 제23회 아시아 청소년축구대회 5일째경기에서 말레이지아와 대결, 전반전 31분에 金俊鉉이 왼발슛으로 첫골을 넣은데이어 李基根이 한골을 추가, 전반전을 2-0으로 앞선뒤 후반전에 申連浩 金鉉琛 金興根 朴國昌이 차례로 득점, 6-0으로 대승했다.

한국은 이로써 예선B조에서 1승1패를 기록, 中共에 2-0으로 패한 충격에서 벗어나 예선통과의 자신을 갖게 되었다. 한국은 6일에 홍콩, 8일에 싱가포르와 예선경기를 벌이는데 홈팀 싱가포르와의 경기가 예선의 고비가 될것으로 보인다. 싱가포르는 中共과함께 2연승으로 선두를 달리고있으나 한국이 제페이스를 다할경우 2골차정도의 승리가 가능한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이 남은 두경기에서 모두이겨 B조2위로 예선을 통과하면 A조1위가 될것으로 보이는 北韓과 준결승전에서 맞붙게된다.

한국은 이날 전후반 슈팅수 16-4정도의 일방적인경기를 벌였다. 한국은 전반전 31분에 金俊鉉이 오프사이드 함정을뚫고 왼발슛, 첫골을 넣고 3분뒤 李基根이 단독 대시로 한골을보태 전반전을 2-0으로 앞섰다.

한국은 후반전 12분에 金鉉琛의 슛이 크로스바를맞고 나오는것을 申連浩가헤딩슛, 한골을 보탠뒤 金鉉琛의 헤딩슛과 金興根및 朴國昌의단독 대시로 한골씩을 보태 6-0으로 대승했다.

◇제5일전적 ▲B조

한국 6 (2-0, 4-0) 0 말레이지아 (1승1패) (2패)

黃珍壽 銅추가

世界대학유도 패자전서 벨기에選手 꺾어

【야바스킬라 (핀란드) 4일=閔炳玉특파원】 한국의 黃珍壽는 4일저녁(한국시간) 이곳에서 벌어진 제7회 대학유도선수권대회 78kg급에서 銅메달을 획득, 한국은모두 3개의 동메달을따냈다.

예선에서 2전전승으로 올라온 黃은 결승토너먼트 준준결승에서 폴란드의 사데스·안드레이에게 한판으로 패해 패자전으로 밀려났다. 黃은 패자전에서 벨기에의 알렌·마사르를 일방적으로 압도, 절반두개를 묶어 한판승으로 제압,동메달을땄다.

이날 86kg급의 程鉉澤은예선서 소련선수에 판정승, 서독선수에 판정패하여 3명의선수가 모두1승1패를 기록했으나 득점에서 뒤져 탈락하고 말았다.

◇프로복싱 4체급 세계타이틀 정복을 꿈꾸는 니카라과출신 라이트급 챔피언 알렉시스·아르게요。

프로복싱 4體級 정복될까

라이트級 아르게요、J웰터級 프라이어에 挑戰

페더-S페더級 이미 반납

아르게요의 4체급 정복신화는 창조될 것인가。

WBC 라이트급 챔피언 알렉시스·아르게요 (30·니카라과 출신·미국서 활약)는 금년안으로 WBA 주니어웰터급 왕자 아론·프라이어(27·미국)에게 도전, 프로복싱 사상 처음으로 4체급 석권을 꿈꾸고있다.

아르게요는 주니어웰터급 정상 정복 전초전으로 지난1일 케빈·루니(미국)에 2회KO승을 거두고 자신의 꿈에 한발 다가섰다. 경기장에는 아론·프라이어도 나타나 아르게요의 경기를 조심스럽게 지켜봐 아르게요와 프라이어의 한판승부가 임박했음을 암시했다.

세계적 프로모터 돈·킹이 주선하고 있는 이들의 대결이 성사된다면 레너드-헌즈, 홈즈-쿠니대결에 못지않는 빅카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아르게요-프라이어 대결이 이루어질경우 개런티는 각각 1백50만달러 (약 10억5천만원)로 이야기되고 있다.

아르게요는 74년11월 루벤·올리바레스를 13회에 KO로 물리치고 WBA 페더급 챔피언에 올라 타이틀을 4차방어전에 성공하고 체중문제로 77년6월 페더급타이틀을 반납했다.

한체급을 올린 주니어라이트급으로 새출발을 한 아르게요는 78년1월 알프레도·에스칼레라를 13회에 침몰시키고 WBC슈퍼페더급 정상을 정복, 2체급석권에 성공했다. 그리고 8차방어에 성공했다. 아르게요는 80년8월 보자·에드워드를 8회에 KO시킨후 또다시 타이틀을 포기하고 라이트급으로 새로운 영역을 개척。

81년6월 런던서 WBC라이트급 챔피언 짐·와트를판정으로 물리치고 역대프로복싱사상 6번째로 3체급을석권했다. 같은해11월 1차방어전서 레이·맨시니(현WBA라이트급챔피언)를 14회에 KO시켰다. 지금까지 76승(62KO) 4패를 기록한 장신의 아르게요는 명석한두뇌의 소유자이며 왼쪽잽과레프트훅이 일품이다。

아르게요의 도전을 받을 챔피언 프라이어도 만만치않은 복서이다. 31연승(29KO)의 무패 챔피언으로유명하다. 【金仁奎기자】

美프로野球 핸더슨 樂觀

도루史上 처음 百개 2번記錄

1백18개돌파

美프로야구 아메리칸·리그 오클랜드·어슬레틱스팀의 도루왕 리키·헨더슨(23)이 3일 1백번째 도루에 성공, 80년 자신이 세운 아메리칸 리그기록과 타이를 이루었다.

지금까지 1백6게임중 1백5게임에 출장, 거의 게임당 1개씩의 도루를 성공시킨 헨더슨은 앞으로 56게임을 남겨 놓고있어 메이저·리그의 기록인 루·브로크의 1백18도루를 무너뜨릴수 있을것으로 보인다.

헨더슨은 이로써 야구사상 처음으로 1백개의도루를 2번 달성한 선수가되었다.

헨더슨은『8、9월이 내게는 몸이 가장 잘풀리는 때이다. 이때 타율도 높여놓겠다』며 기록경신에 의욕을보이고있다.

현재 타율은 2할8푼8리.

그의 1백번째 도루는 시애틀·마리너스와의 경기서 나왔다. 헨더슨은 7회에 안타를치고나가 시애틀의 버그투수가 1구를 던지는틈에 2루스틸에 성공했다. 【오클랜드 AP聯=特約】

한국、필·印尼대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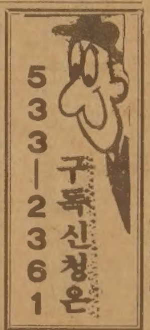
極東리틀야구

【大阪5日AP=聯】 한국은 4일 日本오오사카 (大阪)에서 열리고있는 82년도 極東리틀야구선수권대회 3·4차전에서 필리핀을 7-1로, 인도네시아를 9-2로 각각 대파했다.

이로써 한국은 4전3승1패로 4전전승의 臺灣에 이어 日本과 공동2위를 기록하고있다.

臺灣은 이날 홍콩을 11-0으로 완파한데 이어 필리핀을 13-3으로 대파, 가장 강력한 우승후보로 지목되고 있다.

16세이하의 선수들이 참가한 이번 대회우승국은 오는8월23~29일 美펜실베이니아州 윌리엄즈포트에서 열리는 월드시리즈에 極東대표로 출전한다.



그해 겨울은 따뜻했네 <182>

朴婉緒 作 金光培 畵

양달 ⑰

혠란이 부드럽게 웃으며 침대 모서리에 걸터앉았다.

『어젠 너무 늦었어요. 오빠가 얼마나 걱정했는줄알아요?』

수지는 올케의 부드러운미소와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벌레가 스멀스멀 살갗을 기는 것처럼 싫어서 어깨를 움츠리면서 잠옷깃을 꼭꼭 여몄다. 오빠는 핑계일뿐 올케자신의 궁금증때문에 일찌거니 올라왔다는 걸 수지는 알고 있었다.

『그렇게 됐어요. 좀 싸웠거든요』

『벌써 싸우면 어떡해요. 벌써 해이해진걸요』

『벌써 해이해지다뇨?』

영란이 달덩이처럼 원만하게 부푼 배와는 엉토당토 않게 천박한 호기심을 드러내며 말했다.

『약혼반지 하러가기로한 사람이 글쎄 한시간이나 늦게 나타났으니 내 기분이 어떻겠어요?』

『어머、한시간씩이나?고모되게 자존심 상했겠네』

『자존심 정도가 아녜요。꼭 찢어서 나동그라진 나무토막 꼴이었다니요』

『전 또 왜?』

『내가 자기 말 안듣을 때 그 사람말 버릇이 뭐였는지 알아요? 열번 찍어 안넘어가는 나무 있는줄 아느냐구。기도 안죽고 능글대더니…』

『오빠두 늘 그랬다。그만한 집안에서 그만큼 걱정 없이 순조롭게 자란 사람치곤 박력이 넘친는게 신통하고 마음에 든다구…』

『누가 아니래요。나도 그 박력에 못이기는척 넘어가줬더니 이건 숫제 다된줄 아는지 안하던 것을 하니라니까요』

『고모도 참、다 되지않았음。지금 와서 뭘 또 어쩌겠다는 것 아니겠죠?』

『자존심은 상했지만 그럴 기력도 없읍니다。어북해야 찍힌 나무토막 꼴이었다고』

『안했어요?』

『했어요。여자라면 누구든지 그 정도는 체념 안하면 결혼 못해요。참 왜 그렇게 늦었대요? 따질건 따져둬야지 두고두고 버릇돼요』

시누이 올케 사이도 결국은 여자들 사이였다。여자들 사이중에도 가장 첨예(尖銳)한 관계인지도 몰랐다。상대방의 속셈、특히 남자와의 일이 빤히 속 들여다뵈는 것 같으면서도 한편 신비스럽고도 외설스러운 비밀로 가득차 있어뵀다。그래서 가장 다정스럽게 소근대면서도 말은 믿지않고, 사기눈으로 뭔가를 알아내려고 날카롭게 탐색의 눈을 반짝이고 있었다。

『그 집 참 못쳤요?』

『왜요? 우리 집보다 월등한 집안인데…。벌써부터 시집 우습게 보면 못써요』

『그건 나도 인정해요。글쎄 그 사람아버지가 고향에다가 어마어마한 복지시설을 기증했다지 뭐예요。어제가 바로 그 건물의 개관테이프를 끊는날이라 온 집안식구가 그리로 내려갔다나봐요。하여튼 읍내가 떠들썩하게 큰 잔치였다니까요。안그렇겠어요? 양로시설까지 겸한 노인정에다가 청소년을 위한 도서관、회의장、오락시설、탁아소、유아원、부녀회까지 최신의 시설을 갖춘 복지시설이라니까요』

『그 집이 그 정도로 부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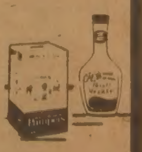
영란의 얼굴이 알게 모르게 그늘을 지면서 혼잣말로 중얼거렸다。이 여자는 질투하고 있다。그렇게생각되자 수지는 뱃속이 근질근질하도록 즐거워졌다。그래도 짐짓 얼굴에 수심을 띠고 말았다。

재미있는 주간여성
식품점서 판매중

Family Product Distributor

도매상과 값을 비교해 보십시요.
저렴한 가격으로 무료 배달($60이상일경우)합니다.

취급품목
Paper towels, 화장지, Detergent, 각종 Soap, 세탁비누, Pampers, 종이봉지(Paper bag)



87 Green Lane, Unit 10 Thornhill
주문☎ : 889-9757

海城酒家
SEA CASTLE RESTAURANT
— 해성주가 —(구 : Sea King)
한국인 고객여러분, 과거 Sea King레스토랑이 장소를 옮겨 다시 Open했읍니다. 옛정을 잊지마시고 다시 찾아주십시오.
◈순수 중국광동식 음식 ◈일류 요리사들만 채용.
◈특히 해산물 전문. ◈1주내로 술허가 나올예정.
◎ 매일 OPEN(일요일포함) 오전10시~새벽3시까지
591 Gerrad St. E. (제랄드×브로드뷰)
새빌딩 Unit B1, B2, B3 (아래층지하실)
☎ 465-8272

佛光寺 법회안내
장 소 : 불 광 사
지도법사 : 석 광 옥 스님
법회안내 : 일요일 오전11시~12시(일반법회)
(청년회 교리연구)
일요일 오후7시~9시(좌선 : 참선지도)
주 소 : 288 Hownslow Ave. Willowdale, Ont.
(Yonge & Finch)
전 화 : 223-91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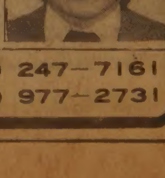
거구장
결혼, 회갑, 생일잔치, 동창회및
각종 피로연 예약 환영
★★ 매혹의 가수 배성 특별출연 ★★
◎7, 8월 여름휴가중 영업시간
월~목 : 오후2시~새벽2시
금 : 오전11시~새벽2시
토~일 : 오후2시~새벽2시
5 BETHRIDGE RD. ETOBICOKE
☎ : 742-1618

광고신청은
광고부로….
만족할만한 광고효과를 볼 수 있는 한국일보 광고를 많이 이용해 주십시요. 여러분께 보다 친절한 마음으로 신속, 정확히 맡은바 정성껏 여러분의 광고를 살펴 드리겠읍니다.
◎일반광고 : 최성조
◎안내광고 : 박경옥
토론토 한국일보 : 533-2361~4

내고향통닭집
냉면
칼국수 전문
658½ BLOOR ST. W.
☎ : 537-0432

한국관
기계로 뽑는
냉면 · 짬뽕 · 짜장면
해장국 · 곰탕 전문
628 Bloor St. W. ☎ : 531-0277

Grant Brown
쎄일즈·매스터
이한구



각종 웨곤(WAGON)
CADILLAC, PONTIAC
BUICK, GMC VAN,
LEASE 취급함
1575 WESTON RD. B) 247-7161
WESTON, ONT. R) 977-2731

KIM'S ART GALLERY Picture Frame Warehouse
●각종 유화·서양화
●사진액자 전문으로 취급
●동양화·초상화
1286 Weston Rd.
(에그링톤×웨스톤)
(B)243-0233 (R)651-2261 김 석환

한국 CLASSIFIED

한인업소 전화번호는 한국안내광고에서

트로피·감사패 전문
Golen Craft
◉특수인쇄(Silk Screen Printing)
◉ Engraving
◉간판 취급
(나무·유리·의류·프라스틱등 특수인쇄 전문)
1700 Wilson Ave.
(B)247-8870 (R)242-4319 김 국일

소독

ZAP SUREKILLER 전화: 368-9018, 366-0960
바퀴벌레 개미등 각종벌레 100% 효과
한국식품점 또는 온타리오 전역 공급, 주문배수

귀금속수리

M & J JEWELLERY REPAIR 시계및 귀금속 수리
1530 Albion Rd, Rexdale (Kipling × Albion)
전화 : 742-1205(B)(R)743-4842 Mr. 바

시설및수리

"가게및 집수리 일체"
시설및 수리(상하수도, 전기제품, 페인팅)
정성 성의껏 봉사해드리겠읍니다.
전화 : 425-8585 Mr. 김

KIM ELECTRIC LTD.
MET. LIC. E1018 전기시설 · 보수 · 경보장치 설치
FIRE ALARM 전화: 438-3795 김 영 호

KIMBO ELECTRIC CO. MET. LICENSE E-725
전기시설 · 보수 · 가게신설 · 용량증설등 전기일 일절
전화: (B) 245-5544 (PAGING) 2790, (R) 255-2161 김 부 원

T. V. 출장 수리
전화: 431-0102 미스타 박

목수일 합니다.
●제네랄·콘트랙터 면허취득 ◉각종건축수리및 신축상담
전화 : 249-0003 Mr. 최

식당

CHOI'S RESTAURANT
메뉴: 초밥, 튀김덮밥, 모밀국수, 갈비, 불고기, 덴뿌라, 스끼야끼, 기타 ◉일요일 휴업
시간: 주중:낮12-밤12시까지, 목금: 낮12-밤1시까지
토: 낮4시30분-밤11시반
주소: 2432 Eglinton Av. E. Scarboro (at Kennedy)
전화: 759-8512 최 영 호

아 리 랑 식 당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영업시간 : 월~일요일까지=낮12시~새벽1시까지
716 BLOOR ST. W. TORONTO 전화: 532-2727

오리엔탈팔레스·뉴서울식당
529 BLOOR ST. W. TOR.
예약 : 533-3545~6

코 리 아 하 우 스
666 BLOOR ST. W.
전화: 536-8666

거 구 장
5 BETHRIDGE RD. 전화: 742-1618

한 국 관 628 BLOOR ST. W. 전화: 536-0290, 531-0277
냉면, 곰탕, 갈비및 중화요리 전문.
OPEN 11 : 00AM~1 : 00AM 대소연 200석 완비

서 울 하 우 스
615 BLOOR ST. W.
전화: 532-0602

Rose Garden (중국집)각종 파티, 회의실 마련
일류요리사, 홍콩식 중국요리 취급
전화 : 656-0456, 654-6609 유 창균

호 심 (Korean & Japanese Restaurant)
1st Canadian Place Concourse Level in the Food Market
100 King St. at Bay(P.O.Box 329) Tel: 368-0686

클링톤하우스 각종모임(동창회·계등)을 위한 조용한 분위기 별실마련. 간단한 중국요리도
693 Bloor St. W 취급(저렴한 가격 봉사) 전화: 535-9541

식품점

삼복식품. (주7일 영업)
금요일 밤12시까지. 일요일 오후4시~오후10시까지
제일좋은 물건만을 골라, 제일 싼값으로 책임있게 봉사합니다. 여름철 야외 바베큐는 맛있고, 살많은 삼복갈비를 이용하세요. 시내어디든지 무료 배달합니다.
2437 Finch Ave. W. Weston. 전화: 743-8270

한 발 식 품
◉ 미시사가지역 교민들께 편리.
◉ 친절한 써비스. 저렴한 가격
◉ 일요일은 오후 4시~8시까지 OPEN
466 SOUTH SERVICE RD. MISSI.
전화: 274-5401

제 일 식 품(구 단풍식품)
7 Days Open(오전10시~오후10시까지)
배달합니다
뒤에 파킹 LOT 마련.
전화: 532-1054 (아리랑식당 옆)

고 려 식 품 680 Bloor St. W. Tor.
주 7일영업(오전10시~오후11시까지)
배달가능. 각종서적및 월간잡지 전화:531-2242

서 울 식 품 (동부)
● 친절한 써비스, ● 저렴한 가격
367 PITFIELD RD.
전화: 291-8317

서울식품 (서부)
◉친절한 써비스 ◉저렴한 가격 ◉김치전문(도매가격)
1391 Weston Rd. 전화 : 243-9544

실내장식

"Fine Design"
설계및 허가, 시공
전화 : 622-5328 (공장) 676-1173 조 덕 남

악기점

피아노 수리·조율·재생·운반.
중고 피아노 팝니다.
PIANO. TECHNICIAN
전화 : 636-1430(R), 665-8233(B)
주소 : 855 ALNESS ST. UNIT 13 이 상 철

와그너 피아노
(B) 445-1516, 449-8644
(R) 286-1548, 박 성희

양장점

샘 터 의 상 실
숙녀복 · 파티드레스 · 웨딩드레스 · 단체주문환영
606 Bloor St. W. 전화 : 535-4441 디자이너 MR. 김

MIRAGE BOUTIQUE(구 코스모스숙녀복집)
각종 고급 숙녀복 취급. 704 Bloor St.W. 전화 : 530-1870
오전 11시~6시30분 금요일은 오후 8시30분까지

의류수선

의류수선, 패턴양재, 주문배수
전화 : 530-1046 10a.m.~5p.m 368-7258 6p.m 이후

의류수선 (남녀분 양복·양장 다 취급함)
의자 카바, Zipper 수리등 성의껏 해드립니다.
전화 문의도 환영합니다. 전화 : 669-5784 (Mrs. Kim)

액자

PICTURE FRAME WAREHOUSE(각종액자)
32A REXDALE BLVD. REXDALE
전화 : 746-2120 조 혜 숙

에어콘 히팅 냉장고

PALMER'S
에어콘, 전기, 개스히팅, 워킹쿨러, 아이스크림후리저
NEW OPEN STORE SPECIAL SERVICE
시설 · 판매 · 수리
전화 : 532-2880, 2889(B) 493-9945(R) 김 봉 균

에어콘·냉동·전기·히팅·세탁기
시설 · 판매 · 수리
정확한 진단 · 예방및 각종 고장 정비
정확한 정비 · 캐나다 최상급 자격증 소지
— 24 HOUR SERVICE —
전화 : 366-5655, 531-5440 이 황 영

CENTURY
(냉동기 시설및 수리)
전화 : 221-5441 Mr. Lee

KIM 냉장고 · 에어콘
시설 · 수리 · 판매
전화 : 749-3178 김 진 환

여행사

신 세 계 여 행 사
712 BLOOR ST. W.
전화 : 536-2155 김 창 범

서 울 여 행 사
631A BLOOR ST. W.
전화 : 535-6004,
: 535-8801 최 동 주

제 일 여 행 사
649A BLOOR ST. W.
(김종조 종합보험 옆)
전화 : 535-2377 유 지 원, 신 용 목

북 미 여 행 사
376 QUEEN ST. E.
전화 : 368-9018,
: 366-0960(B) 임 태 호

광 고 접 수
533~2361

운전학교

아스트라운전학교
761 JANE ST.
전화 : 769-1960(B), 743-3377 Mr. Eastman

이삿짐운송

나 라 운 수
각종 운반및 이사짐, 피아노, 쿨러
전화 : 630-6602

운동구점

브랜든운동구점 (종합운동구점)
각종단체 유니폼및 트로피, 골프, 스키장비 일체 취급
337 BLOOR ST. W. 전화 : 598-3732 이건영

MUNAMI TROPHY & SPORT
각종단체 유니폼, 트로피, 기념타올, 각종골프채등 취급
880 Ellesmere Rd. Scarboro. 전화 : 298-3584 이기훈

인벤토리

INVENTORY — 인벤토리 —
1) STORE 인수, 인계 INVENTORY
2) STORE 정기조사 INVENTORY
3) STORE 납세대비
*주야 INVENTORY
TORONTO RETAILERS INVENTORY CO.
전화: 259-5822,255-8301(B) 252-2963(R) Mr. 오

INVENTORY — 인벤토리 —
주야불문 (공휴일 무관)
전화 : 532-7741(B), 536-6250(R) 호 세 환

인쇄

비둘기사진식자인쇄소
87 Apache Trail Willowdale, Ont.
전화 : 493-8894 윤 종 대

칠성인쇄소, 칠성광고 대표 : 이 인 용
1559A Eglinton W. TOR. ONT. M6E 2G9
전화 : (B) 789-7351, 789-7352

스피디인쇄소
619 BLOOR ST. W.
전화 : 535-3520 곽 호 중

자동차수리

MASTER AUTO BODY
사고차량 24시간 토잉, 사고시 보험관계 처리
수리중 차대여, 페인팅 (Oven Bake Finish)
교포특별대우. 95 Portland St. Etobicoke.
전화 : 255-2111(B), 828-5001(R) 전 기 덕

ANCHOR AUTO BODY
▲완전한 차체수리 ▲무료견적 ▲두꺼운 페인팅
▲토잉 써비스 ▲Rust Proofing
846 RICHMOND ST. W. TOR.
전화: (B) 862-1433 (R) 493-8792 송 창 섭

ALLEN AUTO SERVICE
▲GENERAL AUTO SERVICE ▲TUNE-UP
▲BRAKE JOB ▲TIRE ▲TOWING SERVICE
▲ENGINE OVERHAUL ▲ELECTRIC PROBLEM
▲AUTOMATIC TRANSMISSION ▲OIL CHANGE
주소: 521 KEELE ST. TOR. 전화: 762-3247 정 용 태

O. K. AUTO BODY
자동차 사고 전문
138 SIXTEENTH ST. (New Toronto,)
전화: (B) 251-9889, (R) 242-4551 김 희 삼

자동차 출장수리 (오전및 주말)
INTERPROVINCIAL LICENCE MECHANIC
전화: 749-9749 Mr. 박

CENTRAL AUTO SERVICE 길 창 세
▲Tune up ▲Safty Inspection Certify ▲Professional Brake Service.
481 Dupont St. 532-3946

ROGERS GARAGE (자동차 수리일체)
20 Rogers Rd. 변 달 원
전화: 651-9324(B), 226-5430(R)

L & K AUTO COLLISION
주소 : 346 MUNSTER AVE.(BLOOR & 키플링)
전화 : B) 231-6951, R) 742-5406 오 세 호

CITY WIDE RADIATOR SERVICE 김 용 환
라지에타 — 개스탱크·히터·워터펌프 수리
전화 : 245-1978(B), 248-6032(R)

FIRST AUTO SERVICE
1521 QUEEN ST. W. 최 이 락, 김 한 호
전화: (B) 532-0200, (R)537-5830

Lisbon Auto Collision Inc.
★24시간 토잉써비스
★무료견적 ★수리중차 대여
★완전한 차체수리 ★교포특별대우
★Rust Proofing.
전화 : 533-8507, 533-8508이 영두·이건학

귀 사업체는—.
어디에서 무엇하는 곳입니까?
가장 적은 비용으로, 가장 효과적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 : 533-2361

장의사

장의사(R.S.Kane Funeral Directors)
모든 장의관계 일체 취급
4812 Yonge St.E.(세파드써브웨이) 전화: 221-1159

카펫·카텐

싸다고 소문난 가나안 카텐·카페트·브라인드
2338 LAKESHORE BLVD. W. WINDOW SHADE
전화 : (B)252-4857 (R)252-6602 유 원 녀

카페트 크리닝: 카페트·소파·체어·자동차시트
최신 스팀 샴푸 크리닝
전화 : 439-6277 Mr. 박

태권도

손명수 태권 · 합기도장 사범 : 손명수
2188 BLOOR ST. W. (At Runnymede 써브웨이)
전화 : 763-1155

임총학 태권도장
1963 WESTON RD. (1층)
전화 : 247-7577 (웨스톤 × 로렌스) 로브로앞

정영수 태권도장
1065 St. Clair Ave. W.
전화 : 652-0000 사범 : 정 영 수

완인태권도 完人跆拳道
교포 할인우대
이경태, 이현우 사범 직접책임지도
중앙도장 : 2281 YONGE ST. 전화 : 483-4002
동부도장 : 1865 LAWRENCE AVE. E. 전화: 759-2500

T·V

아카데미 TV & STEREO CO.
SANSUI, BRAUN, ZENITH, TELEFUNKEN 등
◉ 특별대매출, ◉ 월부판매 알선
★ 동부 255 MORNINGSIDE AV. 282-2820
★ 서부 Finch West Mall(Finch & Weston) 745-5555

STEREO KING 전화 : 766-4770
◉ 고급 라디오, 전축 전문센타
◉ 전축 스테레오 수리전문
◉ 비데오 취급
2989 DUNDAS ST. W. (킬 × 던다스)

페인트

페인트 또는 벽지때문에 걱정하십니까? 안심하시고 저희에게 맡겨보십시요. 저렴한 가격과 우수한 기술로 성심껏 모시겠읍니다. 전화상담도 환영합니다.
전화 : 745-6792 (Mr. 우)

하드웨어

Bloor & Bathurst Hardware
전화 : 531-6183 변 의섭

한방원

동양한약상사
20여년의 경험과 연구로 귀하의 문의에 응하겠읍니다.
정확한 진맥, 한방처방조제및 치료상담, 녹용, 웅담, 인삼, 우황청심환, 전자침, 지압치료, 자외선치료, 적외선치료
온타리오 면허소유 함병섭 M.C.I.C. R.M.
◉Downtown Office : (416)537-6685 8am~6 : 30pm
621 Bloor St. W. 한국관 맞은편 Toronto
◉Willowdale Office : (416)222-9485 7pm~10pm
244 Finch Ave. E. (Yonge St.에서 Bayview근처)
VISA 또는 MASTER CHARGE 환영

하르빈한약상사 각종 디스토마 특효약 입하
20년간 한의사 경험(중국의사 자격증 소유)
20년간 하르빈한의대학교수
정확한 진단과 처방
한약으로 암환자를 치료
중국본토에서 한약 직수입
(사향, 경명, 주사, 우황, 진주, 웅담, 인삼, 녹용등)
643A BLOOR ST. W. (신용조합옆)
전화 : (B)536-6854, (R)226-3874 시 춘봉

자연요법 및 지압치료. 왕진도 함(심 하섭)
요통(허리아프신 분), 두통·복통·류마치스·불면증
643A Bloor St.W.(신용조합옆)(B)536-6854 (R)635-8744

보 광 한 약 방
30여년의 (부산) 임상경험을 토대로 교민여러분의 건강관리에 미력하나마 이바지하기 위해 친근한 상담역이 되고자 하오니 한약및 침구에 대한 격의 없는 상담을 바랍니다.
주소 : 92 Brantwood Drive (스카보로 제너랄병원근처)
전화 : 439-6717 김 남 집

아세아한약상사 (645 Bloor St. W.)
진품 웅담·녹용·인삼·우황·사향·경명등 취급.
전화 : (B)530-0522, 530-4900, (R)531-4165

침뜸, 디스크, 좌골신경통, 관절염 (내장질환) 박 영 숙
진료시간 : 매일10AM~8PM 전화 : 922-7090
700 ONTARIO ST. #517(St. Jamestown)

김명종한약방
2433 Finch Ave. W. #411
전화 : 745-2058

동방체질개선연구원 전화: 745-8899(우 봉)
◉한약과 침·뜸·특수부항요법·지압·단식요법. ◉고혈압·신경통·요통·두통·심신불안과 불면증 ◉2433 Finch W. #516

화 랑

U.C.Painting Studio
미술 개인지도, 유화·수채화·뎃상
전화 : 530-4991

회계사무소

김인규회계사무소 ACCOUNTING & TAX
501 Yonge St. #207, Toronto
전화 : 960-5736(B), 844-0178(R)

정필주회계사무소
Tax Return, Tax Planning
4750 Jane St. Suite. 608 전화 : 661-1819

최태권종합회계사무소 (ACCOUNTING & TAX)
개인세무및 보고서작성, 사업회계및 장부정리
637 A BLOOR W. 전화 : 533-7573(B)

김명숙회계사무소
33 Cherryhills Rd. Concord, Ont.
전화 : 669-2710

한인업소 전화번호는 * 한국일보 안내광고 * 한국안내광고에서

아세아 한약방

◉ 특수한약처방및 침술, 각종보약, 각종병약
◉ 물리치료(식이요법, 단식요법, 무료상담)
◉ 무병장수의 비법은 한약과 건강식품으로
◉ 영업시간 : 월-토: 오전 8시 - 오후 8시

645 Bloor St. W. 530-4900(B)
전화 : 531-4165(R), 530-0522(B).

한국 CLASSIFIED

한인업소 전화번호는 한국안내광고에서

BLACK SEA Fish Wholesale Ltd.
각종 생선 소·도매함.

〈영업시간〉
월 · 토: 8:00 a.m-5:00 p.m
화·수·목: 오전8시-오후6시
금 : 오전8시-오후7시
16 Osler St.
전화 762-7255,7256,2700

구인

Part Time Helper 구함(남자분)
직접 내방 바람.
1370 Queen St. E.

Store Part Time Helper구함
남자분. 스카브로지역
전화 : 267-0847

미싱 자수사 구함 - Juki Z 자수미싱으로 고급테이블, 침대 Cover에 자수하고 있음. piece work 환영함.
700 Wilson Ave, Downsview (Dufferin & Wilson)

파출부 Club 모집
여가를 이용해서 남을 도와 주실수 있는분
선착순 약간명 모집, 상세 상담 매일 6시이후 직접 방문요함. 전화문의 사절.
714 Bloor St. W. 2층 2호실
제일식품 후문 옆집. (Mrs. 한)

경험있는 남자 풀타임 헬퍼 구함.
전화 : 532-6143 (낮)
532-9638 (밤)

여자사무원 구함. 영어와 한국어가 가능하며, 타자칠수 있는분. 오전9시부터 오후5시까지 근무함.
전화 : 449-8644 황용현부동산

Grocery & Variety Store Manager구함.
주매상 : $5,000. 보증금 : $10,000
매매도 가함. 전화 : 487-5000

Cashier 여자분 구함(주말 Helper 토·일)
Downtown지역.
전화 : 921-0624

한국일보 안내광고를 이용하세요.
즉시 좋은 결과를 얻으실 것입니다.

구직

바쁘신 분들을 위해여 어린이들을 정성껏 보아 드리겠읍니다. Downtown지역.
전화 : 651-5388 (Mrs. 채)

베비시터

담배 안피우시는 분으로 입주하셔서 두 어린애 보아주시고 가벼운 가정일 돌봐 주실분. 대우 우대함. 목욕탕, 침실 따로 제공하며 매우 분위기 좋은 가정임. 8월20일부터 필요하며 오후 5시 이후에 연락바람.(416)889-7000(Mr./Mrs. Fenwick)타지방에서 문의하실 분은 Collect Call로 하셔도 됩니다.

광고문의
☎ : 533-2361

광고료 · 구독료를 지불하실땐 간편한 CHX. MASTER CHARGE를 이용하세요 전화로 번호만 알려 주시면 됩니다.

VISA master charge

구혼

결혼상담, 직업소개, 전자침 (한국기원내)
653A BLOOR ST. W. TORONTO. (18부터60세 사이)
전화 : 533-0168 매일1시~10시 Mr. 최·김

기타

걱정이 있으신 분은 오십시요.전화 : 652-1280 (Mrs. Adroe) Card, 손금, Tarot등으로 당신의 걱정을 해결해 드리겠읍니다. 636 Vaughan Rd. #1

개인지도

바이올린 교습생 모집
전화 : 535-0708 박 명 진

기관및단체

총영사관	598-4608
한 인 회	755-9288
노 년 회	755-8079
실업인협회	533-7923
Y.M.C.A.	536-1166
외환은행	364-2890
외환은행 Bloor 지점	533-8593
한일은행	865-0456
코리아타운번영회	532-2727
무역진흥공사	977-8784
동 우 회	261-2917
캐나다체육회	533-9336
한인신용조합	533-9387
천주교신용조합	363-0097

파실 물건이 있으시거나 교환하시고 싶은 물건이 있으시면 저희 안내광고를 이용해 보세요. 그 효과에 깜짝 놀라실 것입니다.

매매

고급 콘도미니움 급매(Jane & Eglinton)
고층 APT로서 각종 운동시설이 되어 있음.
(옥외 정구장,Sauna,실내 Pool장,각종 오락시설등)
2Bed Rm+Den. 가격: $70,000
(B)534-1085, (R)244-9073(오후6시이후)Mr. Kim

성업중인 Variety Store for Sale
가정사정으로 급매. 저렴한 가격으로 양도하겠음.
주매상: $3,000 렌트: $300(M) 전화: 259-0323

Chemical Suply for the Printing Trade.
Small but Profitable I will Train the People.
251-8312 (9:00 a.m~5:00 p.m)

Variety Store(New Market지역)
아스킹 : $95,000+Stock. 리스 : 2년+5년 Option.
주매상 대단히 양호한편임. 전화 : 883-9335 (Mike)

Store Equipment for Sale
Two Ice Cream Cabinet, One Electronic Scale(1b) & 기타.
전화 : 746-0107, 727-5902

Small Business for Sale+3 Bed Rm.
중심가에 위치한 동전 빨래 세탁소. 1400 Sq.ft.의 넓이며, 살림집이 포함되어 있고, TV. Tower 그리고 커다란 창고도 포함되었으며, 주차장은 앞으로 더 크게 확장할수 있음. Norwood 7 HWY 선상에 있으며 건물은 7년된것이고 Coin Machine은 1년되었음. 낮은 Mortgage(10% Until'87)아스킹 :$70,000 그리고 2nd Mortgage도 원한다면 주인이 잡아줄예정임.
전화문의 : 1-705-639-2148 (Jack)
서신연락 : Norwood Coin Wash P.O.Box 122 Norwood Ont. K0L 2V0

여자분 혼자서 운영가능한 Mall안에 있는 Variety Store 가정형편상 아주 싼 값에 드립니다. (내방 바람)
1250 South Service Rd. Miss. Ont. (Health Food & Cake)

Variety Store 매매. 주매상 : $4,800.
리스 : 3년+5년(Neagotiation) 아스킹 : $39,000+스탁
1000 Pape Ave. (관심있으신 분 내방바람)

Mall안에 있는 Convenience Store. 스카브로 지역.
주매상 : $4,000. 앞으로의 발전도 대단히 기대됨.
전 화 : 267-8747 (Tom)

미시사가 초입에 있는 꽃및 Gift가게를
위탁하거나, 판매코져 함.
전화 : 624-7597

77년도 폰티액 파리지엔 매매.
4만2천마일.
전화 : 751-3723 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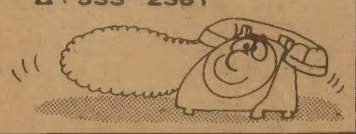
Downtown에 있는 식당매매(가족끼리 하기에 적합)
월수입: $11,000. 아스킹: $65,000(주류면허 있음)
전화 : 844-2950(B). or 845-5670(R) (마르칸토니오)

▲Two Door(5ft.) Ice Cream Cooler (중고)
▲8.5 Galon 대형 Slush 퍼피머신(중고)
전화 : 690-2216 (Mr. 최)

Variety Corner Store for Sale
이층 살림집 포함. 주매상 : $4,000
전화 : (1)-529-0018 Mr. Kim (Hamilton)

조그만 가게 급매.
주매상 : $3,500 전화 : 923-9771

Private Sale. 파킹장 구비한 상업지역의 Building 매매. 8 Rooms. 어떤 Business에도 적합한 매우 좋은 조건의 위치임. 전화 : 921-9847 (William)

한국일보 광고문의
광고국직통전화 :
☎ : 533-2361


구독신청 월~토
☎ : 533-2361

집렌트

4 Bed Rm. House전체를 싸게 세놓음.
Bramalea 부근. $500/M.
전화 : 630-3095

아파트렌트

단기·장기간에 상관없이 방 Rent하실분. 특히 여행하시는 분들에겐 더없이 편리한 여건임. 693 Bloor St. W.
(Christie Subway옆 아리랑식당앞)

방세놓습니다. 노인부부 환영함.
Pape 써브웨이에서 1블럭거리
전화 : 282-0236, 466-3764

도서판매

World Book (백과사전)
전화 : 533-2364, 242-5774 (Mrs. 김)

부동산

복 덕 방 ROYAL TRUST CO.(로얄 트러스트)
곽 석 용 전화 : (B) 752-3111, (R) 298-2546

D.F.McALLISTER R.E.LTD. 김 시 성
투자전문(IC & I)
전화 : (B) 497-0600

이 훈 모 부 동 산
전화 : 225-1204

황 용 현 부 동 산
(주택매매, 사업체 일체)
전화 : (B) 449-8644~5, (R) 286-1548

ROYAL TRUST (유 복 영)
전화 : 762-8255 West 지역

CANADA PERMANENT TRUST CO.
황 순일 전화: 481-3443(B) 745-5485(R)

A.E. LEPAGE (우 덕 이)
전화 : 741-9170

SINCERE REALTY INC. (채 준성: David Chae)
주택 사업체등 모든 부동산 취급.
전화 : (R)633-7892, (B)497-8900

차매매

GRANT BROWN
1575 Weston Rd.
전화 : 247-7161 이 한 구

MARVIN STARR
3132 Eglinton Av. E. Scarboro.
전화 : 264-2311 조 의 불

North York Chev-Olds Ltd.
○. 시보레, 올스모빌, Van및 각종 중고차(lease도 취급)
○. 가장 오랜 경험의 쎄일즈맨
○. 철저한 After-Service
7200 Yonge St. (영 × 스틸)
전화 : (B) 881-5000 (R) 221-2979 김 병권

CEDARBRAE VOLKSWAGEN
666 Markham Rd. Scarboro.
전화 : 438-1900(B), 499-8589(R) 손명철(Michael son)

간판

각종 고급간판 제작및 수리 (CITYLITE SIGNS CO.)
777 WARDEN AVE.
전화 : 751-9236, 757-2106 홍 진 표

J Studio Signs (각종 간판, Silk Screen, Graphic)
127 Manville Rd.
전화 : (B)755-9087, (R)755-5304 이종소

가구점

ECOSYS FURNITURE
2300 YONGE ST.
전화 : 486-0397 김 만 구

'EON'S 가구·카페트·전자제품
.0 McLevin Ave(세파드×마캄)
전화 : (B) 291-3818, (R) 749-9687, 746-0981 조 석 민

꽃집

다우스 꽃집 (DAWES FLORIST)
◉각종 어랜지먼트 & 각종플랜트 ◉각처 주문배달함
464 DAWES RD. (VICTORIA PK. & ST. CLAIR)
TORONTO, ONT. M4B 2E9
전화: 751-5851(B) 757-6711(R) 이 동 환

제인·파크 꽃집 (JANE PARK PLAZA안)
각종파티, 생일, 결혼, 장례꽃주문·배달함.
875 JANE ST. TOR. 전화: B) 769-0609 R) 242-5194(여정웅)

정 숀 꽃 집 MARKLANDWOOD PLAZA 안
4335 BLOOR ST. W. ETOBICOKE
전화: 622-8516(B), 279-3719(R) 허소피아

메리야스

온가족이 애용하는 고급내의 쌍방울 메리야스
602 BLOOR ST. W.
전화 : 532-5394(B), 742-0737(R)

쌍방울 메리야스
Weston Mall (웨스톤 × 핀치)
전화 : 746-3458

미용

킴스미용실
(코리아하우스 뒤)
전화 : 532-7094(B) 438-0628 (R) Mrs.Oh

소니아미용실 신부화장, 남녀커트, 파마전문
2085 Lawrence Ave. E. Jovan Plaza unit 3 (우체국옆)
전화 : (B)759-8854, (R)755-2759 미세스 허

로마노미용실 김 조 자
330 Dixon Rd. W. (Islington 과 Kip ling 사이)
전화 : 248-2957(B) 247-6875(R)

스타미용실 미세스 김
남녀 커트, 파마전문, 9am-8pm. 일, 월요일 휴업
2437 Finch Ave. W. (B)741-4410, (R)742-0827

마야미용실 631 Bloor St. W.
한국관 앞. 서울여행사 이층
전화 : 588-1480(B), 924-0221(R)

레이몬드미용실 (주잔: 한국인)
• 남·녀 컷, 파마전문
• 월-금: 오전9시-오후8시, 토: 오전9시-오후5시
• 2491 Lakeshore Blvd.(레이크셔×로얄욕) 전화: 255-4745

번역및통역

번역, 통역 (통역은 월요일만 합니다.)
CHARLES YU (유좌석) 10 SUNRISE AVE. UNIT 203.
M4A 2R1 전화 : 759-9505 (5시 이후)

변호사

"이민법과 그에 따른 제반업무 전문"
새로 이전한 주소: 390 Bay St. 19층
Tor. Ont. ▲ 361-0404
▲ 593-1818
Barrister and Solicitor
SHELDON M. ROBINS

보석

Young Sook's 보석상
★각종 보석 취급, 최저가격, 중고교환가능
215 Yonge St. (B)368-7961 (R)690-5217 민영숙

보험

CANADA LIFE (강학수)
전화 : 868-0922

김종조 종합보험
전화 : 535-7200

임페리알 LIFE (김홍량)
전화 : 961-3774

SUN LIFE (백용빈)
전화 : 497-3800

조규혁 종합보험
전화 : 233-6236

SUN LIFE (윤호영)
전화 : 922-3111

SUN LIFE (김신명)
전화 : 791-8196

비데오 센타

◉ 각종 비데오 테이프 대여전문
◉ 품질보장, 신용본위 ◉ 비데오 기계, T.V.판매
전화 : 532-0210 손 병 헌

빵 집

Health Bread Bakery
결혼·생일·파티케익등 전문 (배달가능)
534 St.Clair Ave. W. 전화 : 653-1149 Mrs.배

사무용구및계산기

S B S 캐쉬 레지스터 (핀스웨이×이슬링톤)
각종 전자계산기 취급 (2년간보증)
전화 : 252-7377 (R)762-4536 Mr. 안 수일

사진

KIM'S CAMERA 여권사진 즉석촬영
각종카메라 · 전자제품 판매및 수리, 각종 증명사진
619 BLOOR ST. W. 전화 : 534-1085 김 춘 탁

새 한 칼 라 현 상 소 전화 : 535-7772
결혼 · 돌사진 · 각종 증명사진 · 회갑 · 출장환영
현상 인화 확대, 비데오 촬영 630 BLOOR ST. W. TOR.

무 지 개 칼 라-활 영 전 문
COMMERCIAL·ART PHOTOS·WEDDINGS·VIDEO촬영
36 Neapolitan Dr. 전화 : 438-4435 오후9시30분까지

선물센타

거 북 이
617 BLOOR ST. W. 전화 : 535-2143

생선

K & R Sea Food
전화 : 259-1585
▲얼리지 않은 각종 생선.
▲싱싱한 횟감 주문받음
765 The Queensway & Royal York.